건축사 518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2 06
1966년 창간

칼 럼 건축선언! 대한민국 건축을 위한 제언

에세이 희망의 시대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을 마치고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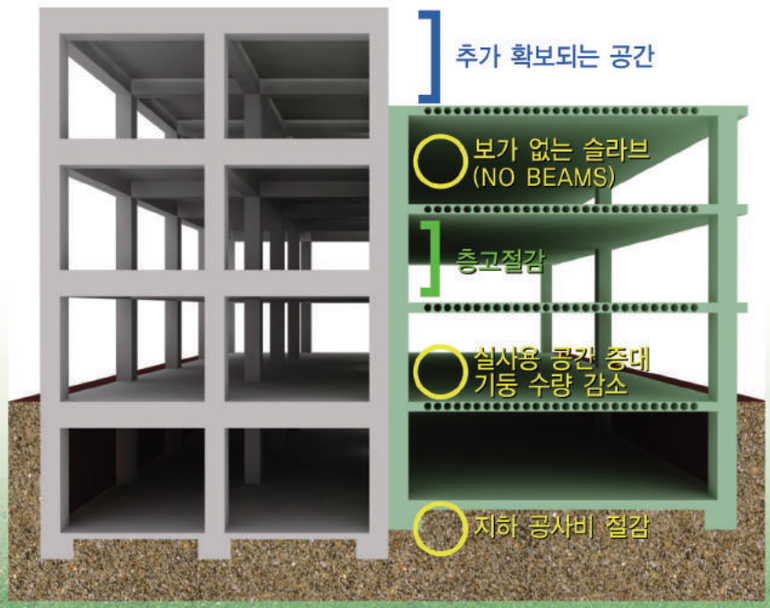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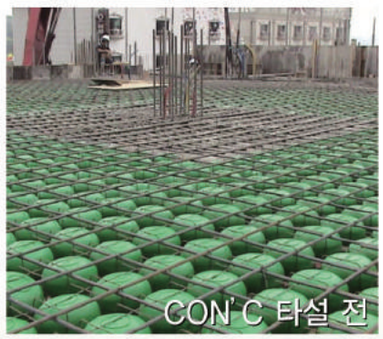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3-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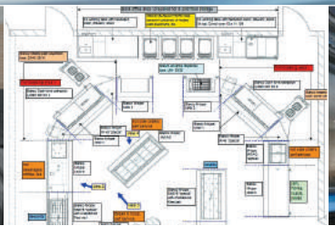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 02)333-4448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4)973-1900

■E-mail : sky23487@hanmail.net　■FAX : 054)973-0067

주방설비시스템,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설계전문

Korea Kitchen Design



Innovative Kitchen Design,
Dynamic Food Service Design and Ventilated Ceiling System

(주)코리아키친디자인은 보다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주방설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설계프로그램 및 전문 해외 컨설팅사와 제휴를 통한 Internation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고품격 주방설비 및 주방천정환기시스템 천정을 필요로 하는 호텔, 리조트, 연회장,
레스토랑, 병원, 단체급식,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방 설비시스템을 제공해드립니다.

Kitchen Design & Planning

- 주방설비계획 및 프로그래밍(2D/3D/렌더링)
- 주방장비사양 및 설비도면, 시방 제작
- 건축,설비,인테리어 코디작업 및 섹션뷰
- 해외전문컨설팅사 협력

Kitchen Operations

- HACCP진행절차개발
- 주방장비사용프로그램
- 친환경설계 및 에너지평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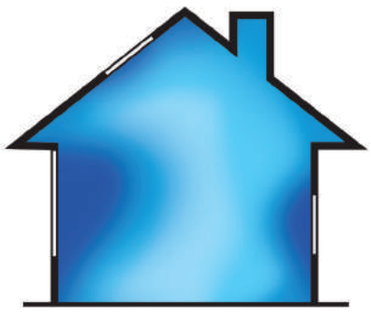
Kitchen Ventilated Ceil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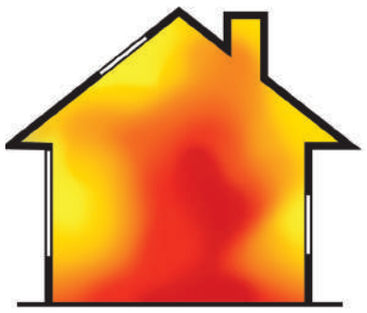
- 선진형 주방천정환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주방시스템 구현

KOREA KITCHEN DESIGN
Food Service Consulting & Planning

(주)코리아키친디자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4-18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3차 802호 TEL : 02-2117-0611~2 FAX : 02-2117-0613 www.koreakitchendesign.com

단열재만 달라도 집안의 **온기가 천지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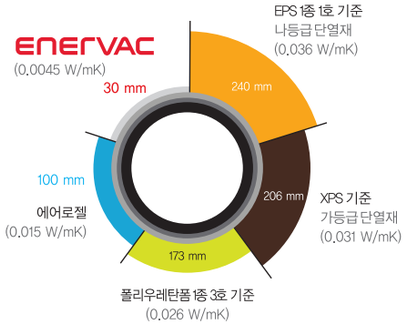


8배 높은 효과
8배 얇은 두께

단열재의 새로운 기준 에너백

기존 대비 8배 높은 단열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과
공간 활용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단열재, 에너백
이제 내 집이라면 평생 단열재, 에너백이 정답입니다

▶ 단열재 종류별 열전도율(W/mK) 및 두께비교(Passive house 기준)



단열재의 혁신! 단열성능이 8배 높은 FS진공 단열재 에너백

- **에너지효율성** 8배 강화된 단열효과로 냉난방 에너지 소비감소
- **화재안전성** 무기질 FS(흄드실리카)소재로 준불연 등급 획득
- **품질우수성**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추천자재 인증 획득
- **공간효율성** 단열두께 감소로 15%공간 확장효과 (내부면적 100m² 기준)
- **친환경성** 단열재 중 국내 최초 녹색기술 인증 획득
- ▸ **연락처 02-727-9647 I www.oci.co.kr**

enervac

※ 에너백은 EPS 1종 1호 제품 대비 8배 단열성능이 뛰어납니다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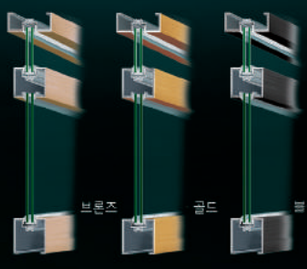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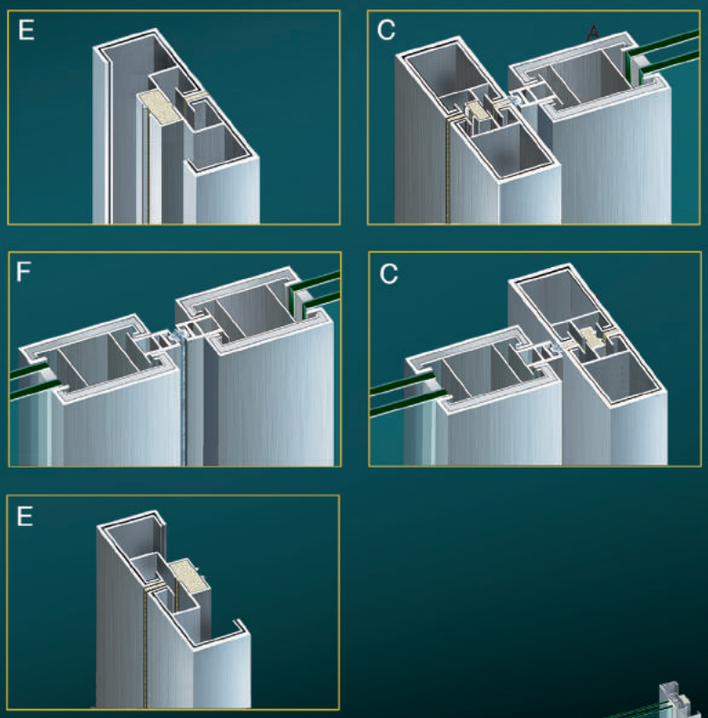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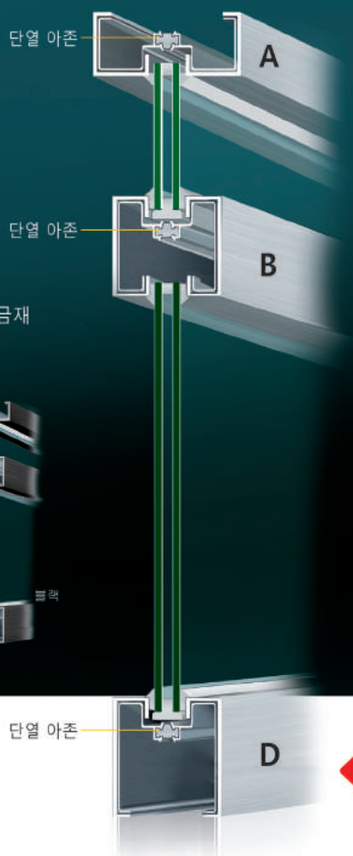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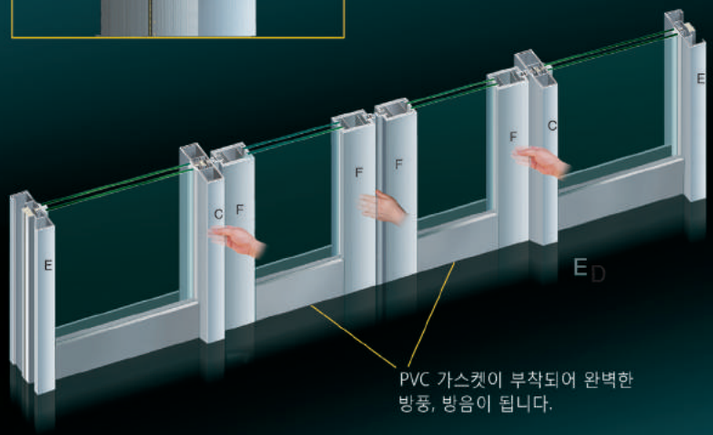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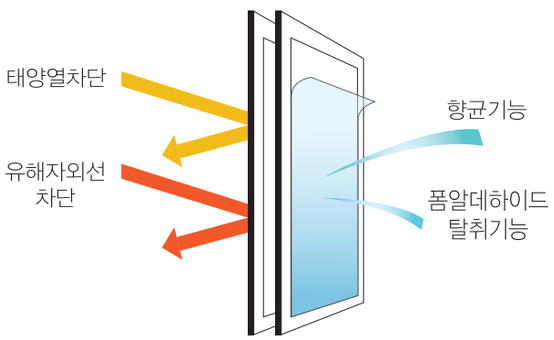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창(窓)' 의 그린혁명
솔라메이트 에코윈도우 필름
www.solarmate.co.kr

창호 에너지효율 등급, 단열필름으로 UP!

창호성능의 새로운 기준, 솔라메이트 에코 윈도우 필름



이제는 겨울철 열관류율(U-Value)만으로
창호의 성능, 에너지 효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태양열 유입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

태양열(일사)유입계수(G-Value)가
여름철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성능입니다.

Solar Control Eco-Window Film

Solarmate is a leading
company specialized in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energy-efficient window film
with innovative nano-materials and patented
multi-coating technology.

여름철 일사유입계수(G-Value)의 압도적인 성능차이,
솔라메이트 에코 윈도우 필름

구분	태양열 투과율	차폐계수	총취득열량
그린복층유리	43.8%	0.61	408.3 W/㎡
그린복층유리 + 단열필름	19.7%	0.33	235.9 W/㎡
감소율	55%	45%	42%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DATA

솔라메이트 에코 윈도우 필름은
G-Value, SHGC, SC, TSER, IRR 등의 에너지 절감 성능 뿐만 아니라
Anti-bacterial 99%, UV-Cut 99%, 폼알데하이드 탈취 기능 등,
친환경 그린기술로 창호 에너지 등급은 물론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Please contact Solarmate by
E-mail. toh@solarmate.co.kr
Tel. +82 2 579 6616
Fax. +82 2 579 6617

Web. http://www.solarmate.co.kr

SOLARMATE

주식회사 솔라메이트
02-579-6616 / 02-579-6617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607호
www.solarmate.co.kr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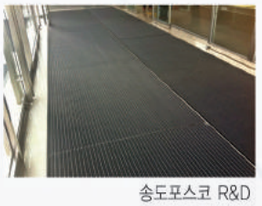
삼성데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02-786-7115 / Fax:02-784-2011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June 06

COVER STORY

표지사진 :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주)상지이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자료제공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5 칼 럼 COLUMN
건축선언! 대한민국 건축을 위한 제언
Architectural Proclamation! The Epigraph of Korean Architecure
_조충기

017 에세이 ESSAY
희망의 시대
The Era of Hope
_이창율

018 에세이 ESSAY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을 마치고
Epilogue of 2012 Opening Ceremony of KIRA Convention
_이창섭

021 만 평 CARTOON
_김낙중

022 회원작품 WORKS
예봉루
YEBONG-LU
_정현화, 임영수, 박종성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DONGDAEMUN HIGH CLOTHING-TECHNOLOGY CENTER
_함인선, 전영성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BUSAN CULTURAL CONTENT COMPLEX
_김동회, 허동윤 | (주)상지이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용흠, 이대혁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6월호 통권 518호

좋은집 펜션
PENSION CHAE-NANUM
_김향희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남구 푸른솔 경로당
NAMGU PUREUNSOL SENIOR CITIZEN CENTER
_조서영 | 서원 건축사사무소

052 설계경기 COMPETITION
포항 중앙도서관
POHANG CENTRAL LIBRARY

센텀119안전센터
A BIG HUG FOR THE CENTUM CITY

063 광고 ADVERTISEMENT
건축사자격제도안내
Information of Architect Qualification Law

075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두 번째 이야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 - The Second Story
_박시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의 범위와 대상
The Recipient and Range of Evaluation of Moving-In Resident Registration Notification
_성승환

078 연구 RESEARCH
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신기술 기초보강 방법
New Foundation Enhancement Technology for Architectural Remodeling
_조현군

082 기고 FEATURE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 진행과 관련하여
About Process of New U.S. Military Base Project (YRP)
_오근석

나의 행랑채에 대한 조사(弔辭)
My funeral address about 'Hangranchae(Servant Quarter)'
_최상철

086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2011년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 수상

Slim 두께는

열효율은 High

①알루미늄 필름
②폴리에스터 중공사 장섬유
③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④알루미늄 필름
⑤가교발포 폴리에틸렌
⑥알루미늄 필름
⑦가교발포 폴리에틸렌
⑧알루미늄 필름

제품 특징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단열효과가 높음.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TECHLON™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주)테크론 본사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Tel 031) 671-7071~3 Fax 031) 671-7074 www.itechlon.com

건축선언! 대한민국 건축을 위한 제언

Architectural Proclamation! The Epigraph of Korean Architecture

조충기 |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2002년 3월 우리나라는 5년제 건축학과생을 선발하여 2007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11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올해 '건축학 전문학위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의 51.4%만이 건축사사무소로 취업하였다.

무엇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그래, 시대를 탓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변화된 외부적 조건을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최종의 목표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시공자의 행정 앞잡이가 되어 건축의 본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건축사를 버리자!

건축주와의 상담이 불가능한 현실의 건축사,
건축주가 공인중개사무소를 찾고, 시공사를 찾아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말라.
건축주와 공사비를 상담해야하고 시공을 알아야하고 재료를 알아야한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을 알아야 한다.
자부심의 건축사. 여러 번의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터!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라. 건축사가 짓는 건물이 차마 시공사가 지은 것만 못하기야 하겠는가? 가라! 가서 그대의 창작물을 직접 지어라. 비용도 알고 재료도 알고 시장도 알고 금융도 알고 자존심도 알 것 아닌가. 그래야 건축을 말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그래야 건축주와 대화라도 되지 아니 하겠는가?
그래야 건축이 국민들 속으로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 아둔한 정부가 깨우치기라도 할 것 아닌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윤리를, 인문사회를, 재료를, 구조를, 환경을, 설비를, 시공을, 적산을, 법규를, 부동산을, 경제를, 건축행정을… 졸업 후, 또 다시 실무를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홀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실무적(professional degree)으로 가르쳐야 한다.
감히 건축계획에도 관여하는 저 무례한 공무들 앞에서 당당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건축주 앞에서 공간의 품격을 논하고 공기와 공사 예정가를 설명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며, 시대에 이름을 붙여 왔다.
이제 건축사가 바뀌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건축의 자존심이 활짝 피어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건축의 본질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건축사들과 건축의 미래 인재들이 '떳떳하게 건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건축을 선언하는 이유다!

조충기는 건축사이며 시인이다. 디자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간 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학과에서 건축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작품으로는 LaMista, ITtower, traum, ToTo, t∫elou, forRest, 아침, 길동390 등이 있다.

희망의 시대
The Era of Hope

이창율 |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위원장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매일 뽐내는 것이 취미인 왕이 있었다. 왕은 매일 화려한 장식을 몸에 두르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밤낮으로 파티를 즐기곤 했다. 왕은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이 처리해야 할 나라와 백성의 안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화려한 생활에만 푹 빠져 지냈다. 이런 왕을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밖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큰 창을 달았다. 왕은 평소와 같이 거울을 찾다가 거울이 놓여 있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거리를 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뒤지는 아이들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노인들이 왕의 시야에 들어왔다. 고통 받는 백성의 모습을 직면한 왕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왕은 화려한 의복과 장신구를 벗고 백성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가치관, 연령, 감정, 직업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는다.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신랑과 신부는 예복을 입는다. 총회는 회장과 임원들에게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도록 명하였다. 총회가 명한 옷을 입고 정관의 목적에 따라 회원들을 섬기라는 지위와 권위를 부여했다. 회원들의 어두움을 진단하여 빛을 발하라! 라는 빛의 옷을 입혀 특권까지 부여했다. 임원은 민생건축사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이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을 때만이 임기 후 회원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깨에 메는 계급장이 아니라면 순종으로 가슴에 품는 것은 회원에 대한 사랑이며 섬김이다. 회원들의 필요를 품을 때에 비로소 회원들의 가치관과 그 바람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의 양극화현상이 날로 심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회원 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건축사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건기법에 의한 감리업계는 제도의 보장으로 그 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설계시장은 감리시장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60% 이상을 덤핑으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로부터 보장 받는 설계매출시장을 모든 회원이 공유 할 수 있는 「건축사연금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설문조사 이후 용역발주와 공청회를 거쳐 13년 2월 총회에 상정하여 모든 회원들의 뜻을 묻고자 준비 중인 추진위원들의 노고에 많은 아이디어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교육과 건축사자기계발과정교육 및 실무를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우리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
드디어, 모든 건축사가 하나의 정관에 의해 치리되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간부문의 보수대가를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적용 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다. 필요에 의해 모든 건축사들은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부활은 모든 건축사들의 희망이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안보, 민주, 경제, 복지의 화두에서 이제는 「희망」으로 사회가 창조되어가고 있는 시대이다. 제도가 정착되어 희망이 보여 질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추는 왕, 부유한 사람들과 날마다 연회를 즐기는 왕에게 복 받는 민초들은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이창율 건축사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와 부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을 역임하였다.

ESSAY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을 마치고

Epilogue of 2012 Opening Ceremony of KIRA Convention

이창섭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발대식(發隊式)이 대회개막 5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5월 11일 광주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금년 대회의 주관자인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심상봉) 주관으로 열린 발대식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국토해양부 도시국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등 외빈과 본 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회장이 축하차 참석하였고 광주광역시의 전회원이 동참하였다. 역대 건축사대회 중 최초로 거행된 발대식은 성공적 개최 결의를 다짐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발대식의 순서 하나하나가 좋았지만 특히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역대 회장이 맡아 후배 회장인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또한 이날 위촉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노력봉사와 아울러 대회 기금까지 기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광주건축사회의 단합과 결집은 발대식으로 인하여 더욱더 다져졌으며, 어느 대회보다 완벽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건축사대회는 건축사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승화시켜야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기능을 발휘한다. 대회도 주관자의 열의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주관자의 열의는 더할 나위 없으니 이를 참관한 각 시도회장이 느낀 대로 회원들께 전달한다면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건축사대회를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鼓吹)해 왔고 동질감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며 단합을 다져왔으며 이로써 무엇이든 하면 될 것 같은 희망을 보아왔다. 그러하기에 막대한 비용과 전국에서 이동하는 불편을 무릅쓰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대회의 이 같은 뜨거운 열기와 단합의 폭발적 에너지는 행사 때에만 존재하고, 건축사의 어려운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절반 이상이 1년에 단 한건의 수주도 못하고, 90%가 빈곤에 허덕이며 전문자격자로서의 품위 유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사무소를 유지하기 어려워 소위 ‘핸드폰 건축사’가 등장한지 이미 오래고,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더하여 소수의 매머드급 사무소만 더욱 커지는 피라밋 구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9명의 건축사 모두가 외국인으로 계약되는 수모를 당한 바 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안정된 삶의 구현을 위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지지부진하고 소수의 임원이나 위원들만 노력할 뿐 전 회원의 힘과 능력을 결집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획기적인 단계의 비상은 강력한 리더십과 단합된 펠로우십이 함께 할 때에만 가능하였다. 우리도 이 역경을 헤쳐 나가 진정한 전문자격자로서의 위상(位相)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결집된 힘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회의 성과는 반쪽자리에 머무른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건축사대회의 열기를 건축사의 삶을 향상하는데 초석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는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인 이창섭 건축사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양대학교 Ubiquitous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서울시건축사회 간사 및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및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대한건축사협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건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10월 25일, 가을의 푸른 하늘 속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구호처럼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걸판진 잔치를 벌여보자.
그 속에서 결집된 무한한 에너지로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자!

국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발전시켜야

건축사대회는 한발 더 나아가 건축사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화해야 한다. 문화의 달 10월이 되면 우리는 본 협회를 필두로 각 시도별로 수많은 건축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그림, 사진, 레고집짓기부터 문화대상을 비롯한 각종 건축전, 건축영화제, 건축산업전시회 등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이들을 건축사대회와 연계하여 '부동산과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축을 '남들에게도 보여짐을 당하는 예술로서의 건축'으로 생각을 바꿔놓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은 단번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꾸준히 차근차근 시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민도(民度)가 높아지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없고, 건축사의 대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국민의 건축관이 바뀌어야만 주택 한 채만 설계하여도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국형 건축사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국민의 건축을 보는 눈과 생각을 바꾸는 일은 국가 사회적으로 문화국가의 달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공익적 효과와 궁극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자격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회주제 '時+文=建築, 건축사 시대와 삶을 짓다'가 의미하는 것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사, 삶을 짓다'란 금년 건축사대회의 주제는 우리 건축사들뿐만 아니라 건축의 본질을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도 더없이 좋은 주제이다.
광주건축사회가 대회 유치를 확정한 후 공모와 여러 차례에 걸친 토의 끝에 정한 본 주제는 세계적으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작년도 대회주제(大會主題)가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의 건축이었던 점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시너지 효과도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건축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 등이 담겨 있는 거대한 그릇이다. 그러하기에 시(時)는 한 시대의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순간순간이기도 하다. 건축은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되지만 건축주의 역할이 있게 마련이니 건축물은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文)은 인문학인 문(文) · 사(史) · 철(哲)의 선두에 서왔으며 문학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 예술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회원들에게는 통섭의 시대를 맞아 예술전반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께는 예술로서의 건축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없이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빛고을 광주는 예향(藝鄕)의 도시이다. 그림이 있고 소리가 있고 건축이 있다. 또한 별미들이 가득하다. 이에 더하여 1박 2일의 대회기간을 알차게 준비하는 광주회원들이 있다.
10월 25일, 가을의 푸른 하늘 속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질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구호처럼 "신나게! 멋지게! 친하게!" 걸판진 잔치를 벌여보자. 그 속에서 결집된 무한한 에너지로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자.

예전에는…

앞으로는…

건축상 대상의 확대 : 이러다간 전국민이 타겠네요.

김낙중 | Kim, Nak-jung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협회 작품상 수상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예봉루
YEBONG-LU

건축주 |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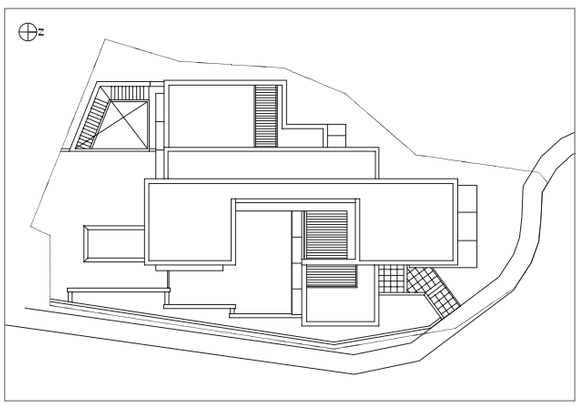
설계자 | 정현화, 임영수, 박종성_KIRA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현아, 서혜진, 김진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서울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한일M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한일EMC
  - 토목분야 : 무오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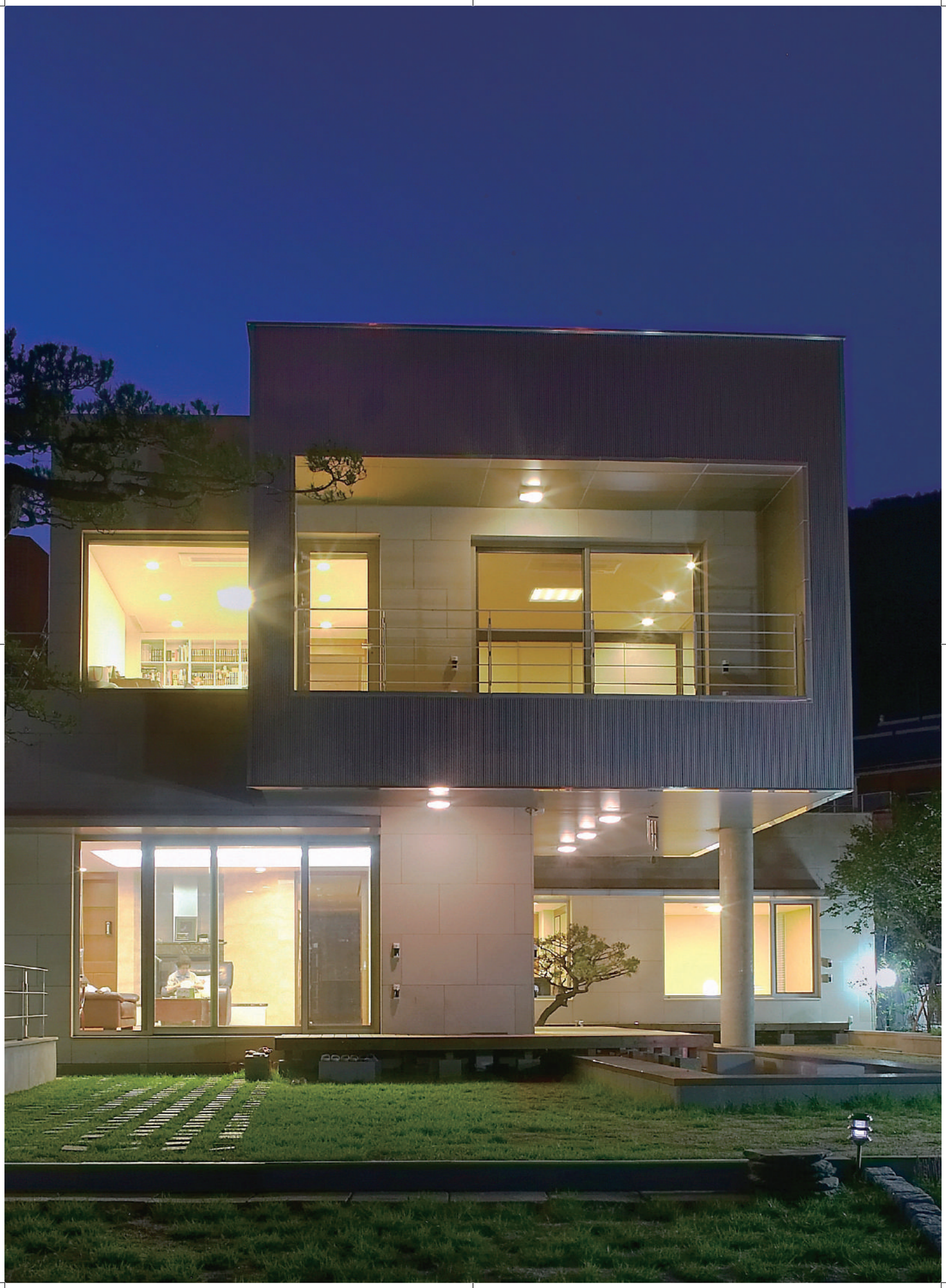
시공사 | 삼협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대지면적(Site Area) | 66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51.20㎡
연면적(Gross Floor Area) | 784.9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06%
용적률(Floor Area Ratio) | 48.54%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라임스톤, AL–T패널, 내후성강판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02~2009.06
공사기간 | 2009.11~2011.03

Architect | Jeong, Hyeon-hwa / Im, Yeong-su / Park, Jong-seong
Project team | Kim, Hyeon-a / Seo, Hye-jin / Kim, Jin-hui
General Constractor | SAMHYUB
Location | Paldang-ri, Wabu-eup, Namyangju-si, Gyeonggi-do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 Lime stone, AL-T Panel, Weatherable steel sheet
Design period | 2009.02~2009.06
Construction period | 2009.11~2011.03



배치도



이 주택은 팔당대교를 건너서 팔당역 뒤쪽 예봉산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으로는 예봉산 능선을 원경으로 마주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서 하남 검단산의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배산임수의 땅에 자리 잡고 있다.

화려한 이 자연에 대한 건축적 생각은 이 집에서의 조망이 어떤 주거의 장치들을 통하여 몇 개의 주거 내부의 풍경으로 치환시키느냐는 것이었다. 무한정으로 열린 자연에 대하여 제한된 '풍경의 시퀀스'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집은 전원이지만 전원주택개념이 아닌 3세대가 사는 전형적인 주택이다. 경사지에 노출된 지하층에는 건축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100평 정도의 창고를 기단으로 하여, 지상 2개 층은 주거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지상층은 3개의 채 나눔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크게 거실과 식당이 있는 '거실채'와 할머니방과 딸방이 있는 '아래채'의 두 개의 채로 나누고, 두 개의 채에서 남향의 조망이 모두 확보되도록 남쪽을 향해 엇비슷하게 평행으로 배치하였다. 안방과 사랑방이 있는 '안채'는 2층에 올렸으며, 동향으로 길게 배치하여 동쪽의 예봉산자락 경치를 시각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층의 사랑방은 아래층이 필로티로 되어 공간적으로는 '루(樓)'의 의미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3개의 채의 만남이 입체적으로 외부공간을 한정짓도록 하여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중정과 툇마루와 테라스가 되도록 하였다.

이 공간들을 한없이 펼쳐진 자연에 대하여, 휴먼스케일로 규정된 옥외 전이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 집은 우리의 전통주거공간의 채 나눔을 수직화 시킨 것이다.

예봉루는 친환경주택으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외부재료는 새로운 시도로 외단열 알루미늄 골강판과 라임스톤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충분하게 하면서, 금속판과 돌의 이질적인 만남이 서로 조화되도록 디테일을 충실하게 생각하였다.

After crossing Pal Dang Grand Bridge, the 'Yebong-lu' is located at the south of the Yebong Mountain, and facing the Yebong Mountain ridge at a distant view. The placement of the residence is following the traditional way of 'Baesan-imsu'[1] , as the Han River is placing at the south where the scenic panorama of the Geomdan Mountain came into view throughout the year.

The main architectural idea is how to substitute several views for this splendid scenery into the house by using architectural instruments for a residential. The objective is to create a series of framed 「sequential scenery」 from the unlimitedly spacious natural landscape.

The house is not an idyllic country house, but a typical residence for 3 generations living together. The exposed basement is about 330m^2, placed on a slope. It is a stereobate of the House, used for the owner's business warehouse. The first and the second floors on the ground are designed for living of his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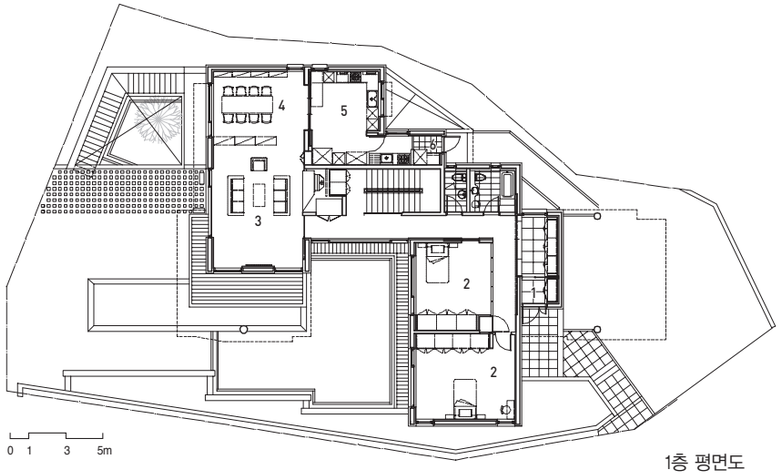
The residential floors are divided by 3 'chae'[2] . The first floor is mainly composed of two chae, 'Sarang-chae' for living room and dining rooms, and 'Alae-chae' for a grandmother's and a daughter's room. These two 'chae' are placed alternately and secure the southern view.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An-chae' for an 'An-bang'[3] and a 'Sarang-bang'[4]. The 'An-chae' is planned to visually inflow of the foot's scenery of the Yebong Mountain by placing the mass lengthways toward the east. The 'Sarang-bang' of the second floor tends to be a space like a 'Lu'[5] with pilotis. The tridimensional intersection by 3 'chae's creates a perimeter of the exterior space. Then, the perimeter spontaneously provides the space for a courtyard, a 'toenmaru'[6], and a terrace respectively.

These spaces are expected to be a transitional outdoor space from the infinite nature into a human scale. The house is vertical transformation of the spatial division by 'chae', used in a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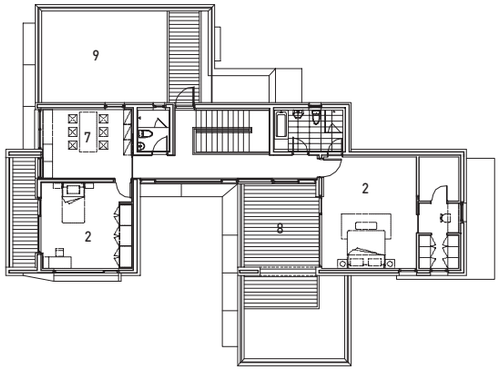
The 'Yebong-lu' is a sustainable, actively applying the technology of solar heating, photovoltaic and thermal energy. The exterior material is an experimental by using the corrugated aluminum plate with outside insulation and limestone. The details are carefully designed, considering the harmony between disparate materials as well as their durability.

1. Baesan-imsu: traditional methodology of placing a residence along the natural circumstance. It means a mountain stands at the back of a house and a river is passing through at the front of a house.
2. Chae: unit for counting houses or separated blocks within a house.
3. An-bang: master bedroom of a Korean traditional house.
4. Sarang-bang: guestroom of a Korean traditional house.
5. Lu: a house rose from ground by columns in order to look all around of the outside.
6. Toenmaru: narrow wooden porch running along the outside of a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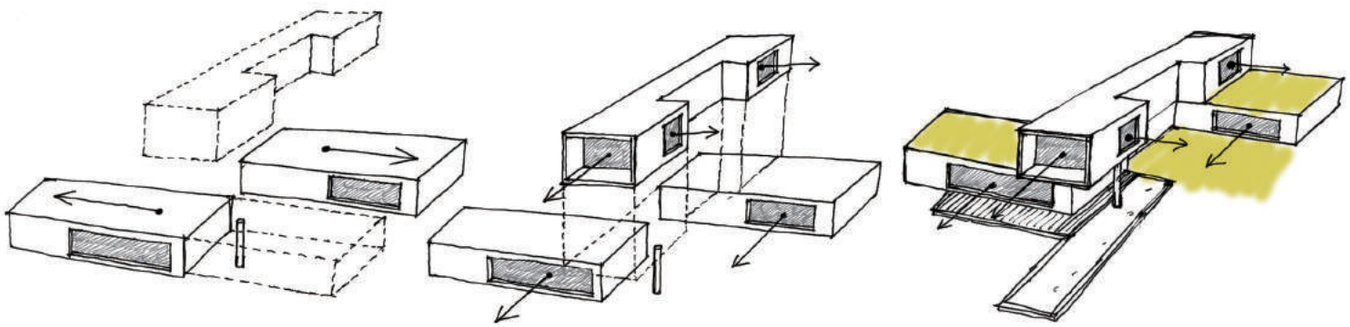
01_ 현관
02_ 방
03_ 거실
04_ 식당
05_ 주방
06_ 세탁실
07_ 사랑방
08_ 테라스
09_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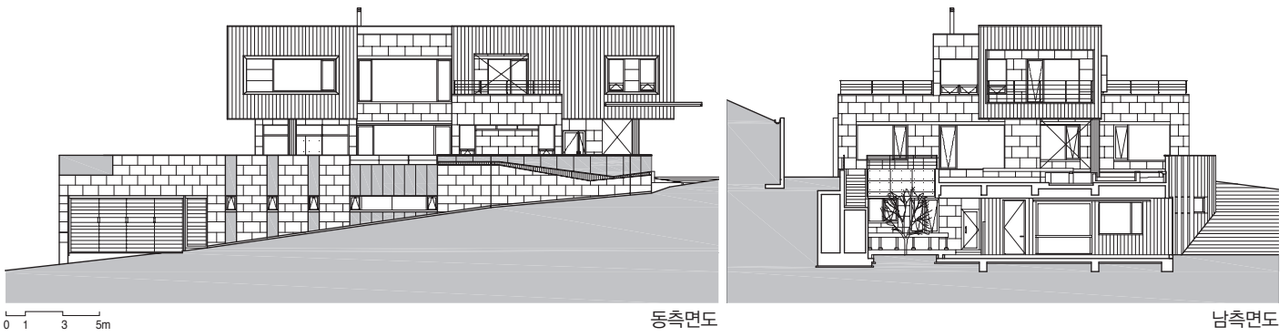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동측면도

남측면도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
DONGDAEMUN HIGH CLOTHING-TECHNOLOGY CENTER

건축주 |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설계자 | 함인선, 전영성_KIRA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곽동진, 배형식, 최성환, 신지원, 전영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토목분야 : ㈜오주엔지니어링

시공사 | 화성산업(주)

대지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251-160
대지면적(Site Area) | 2,399.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72.15㎡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928.0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75%
용적률(Floor Area Ratio) | 486.49%
규모(Building Scope) | B2 - 10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알루미늄복합패널+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8. 4. 9 ~ 2009. 6. 30
공사기간 | 2010. 1. 4 ~ 2012. 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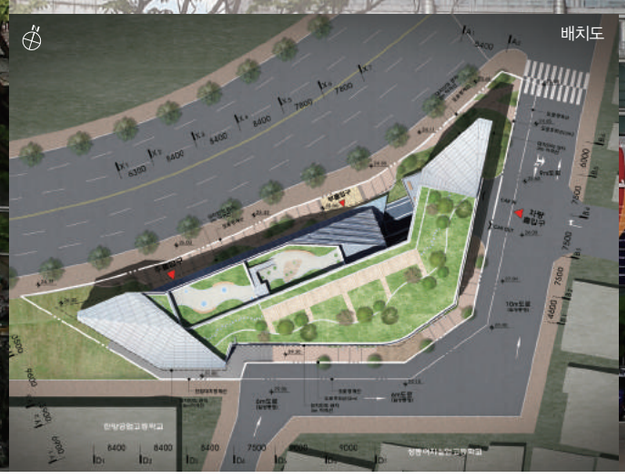
Client | KICOX(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Architect | Hahm, In-sun / Jeon, Young-sung

Project Team | Kwak, Dong-jin / Bae, Hyeong-sik / Choi, Seong-hwan
Shin, Gi-won / Jeon, Yeong-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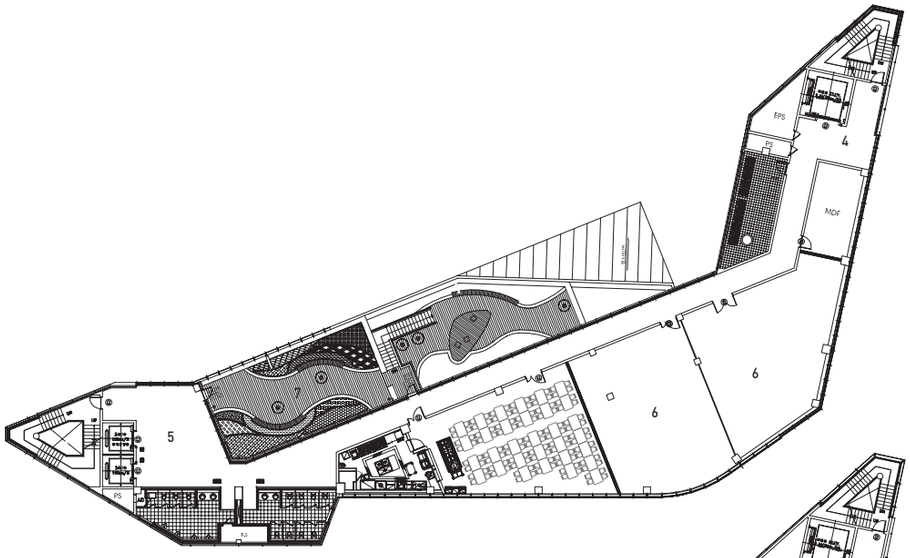
General Constractor | Contractor | Hwasung Industrial Co., LTD

Location | 251-160, Sindang-dong Jung-gu, Seoul, Korea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Aluminum composite panel
Structural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HVAC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Electrical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Civil Engineer |Oju Engineering
Design period | 2008. 4. 9 ~ 2009. 6. 30
Construction period. |2010. 1. 4 ~ 2012. 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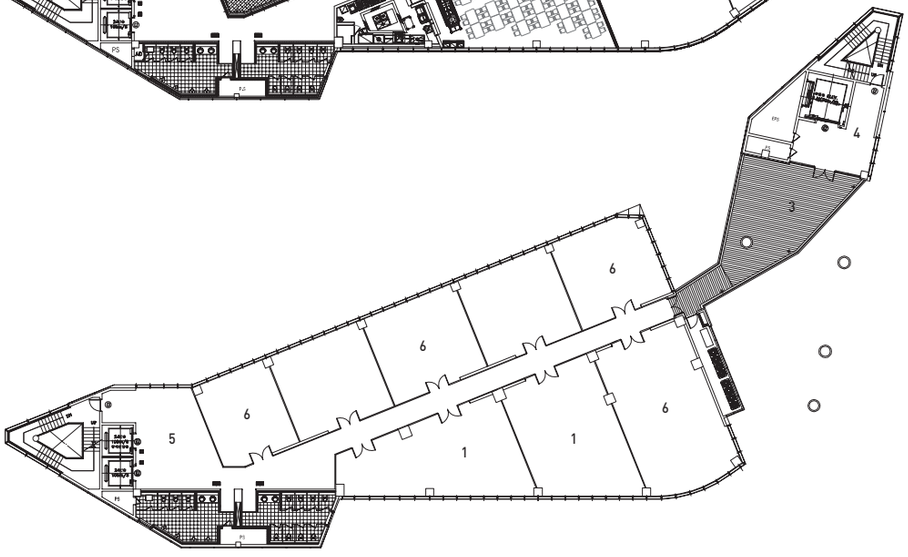


INOZ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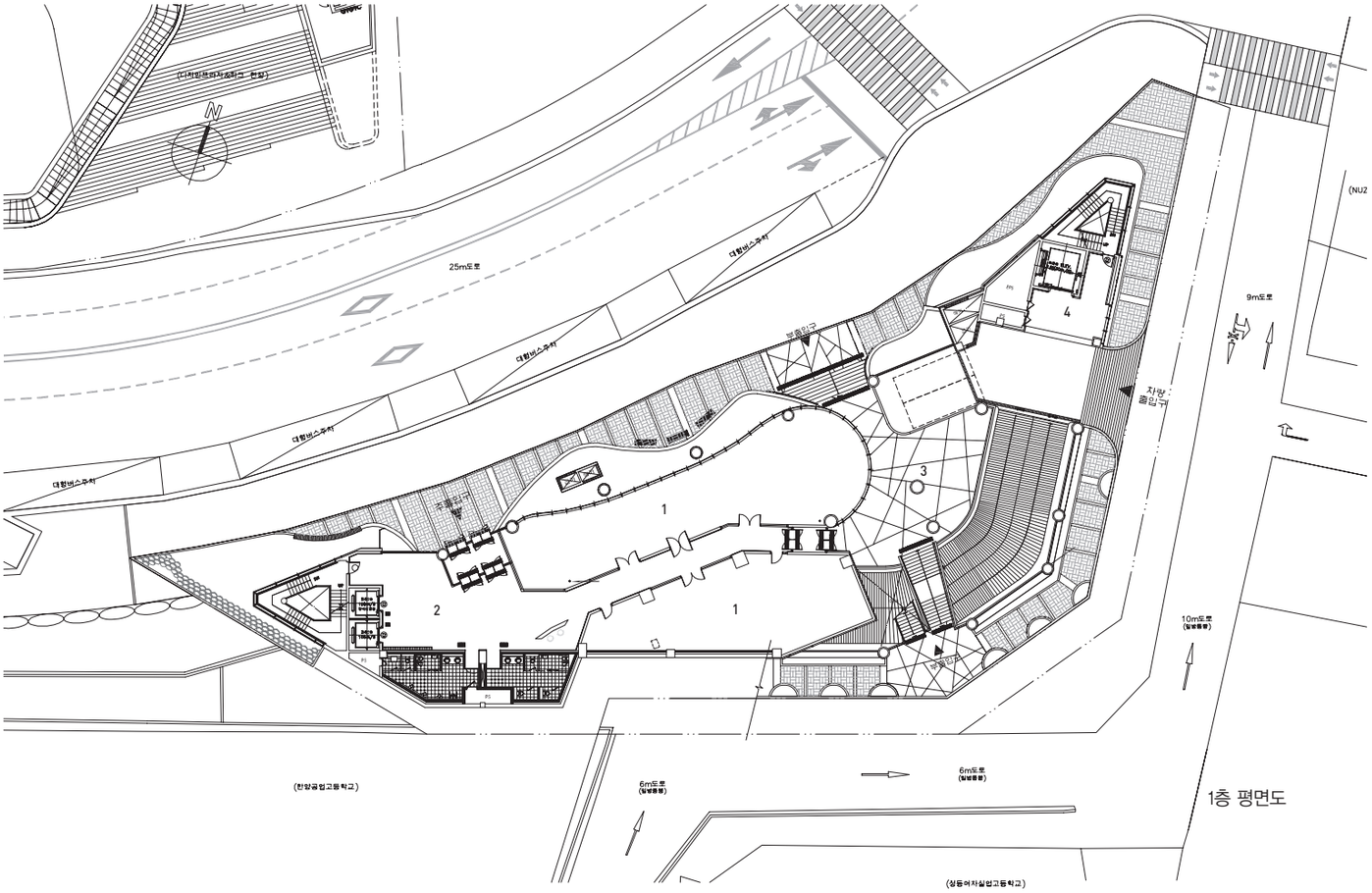
01_ 근린생활시설
02_ 로비
03_ 데크
04_ 화물 ELE.V
05_ 홀 및 복도
06_ 공장
07_ 휴게공간



10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대문 첨단의류기술센터는 패션과 디자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할 종합 지원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패션산업단지라는 특화된 목적성에 맞춘 One Stop System 구축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지는 디자인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의류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폭 33m에 최고 6m의 단차를 가진 기하학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배치의 주안점은 대지의 형상을 반영한 배치축 설정과 대지축에 순응한 보행 및 차량동선 유도에 있었다.

입주 업체들의 업무 특성상 물품 반출입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독립된 하역공간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 업무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행동선과의 중첩을 방지하였다. 진입부에 집중 배치된 지원시설은 첨단의류기술센터의 아이덴티티를 높여 인지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실내시설과 실외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합리적인 공간활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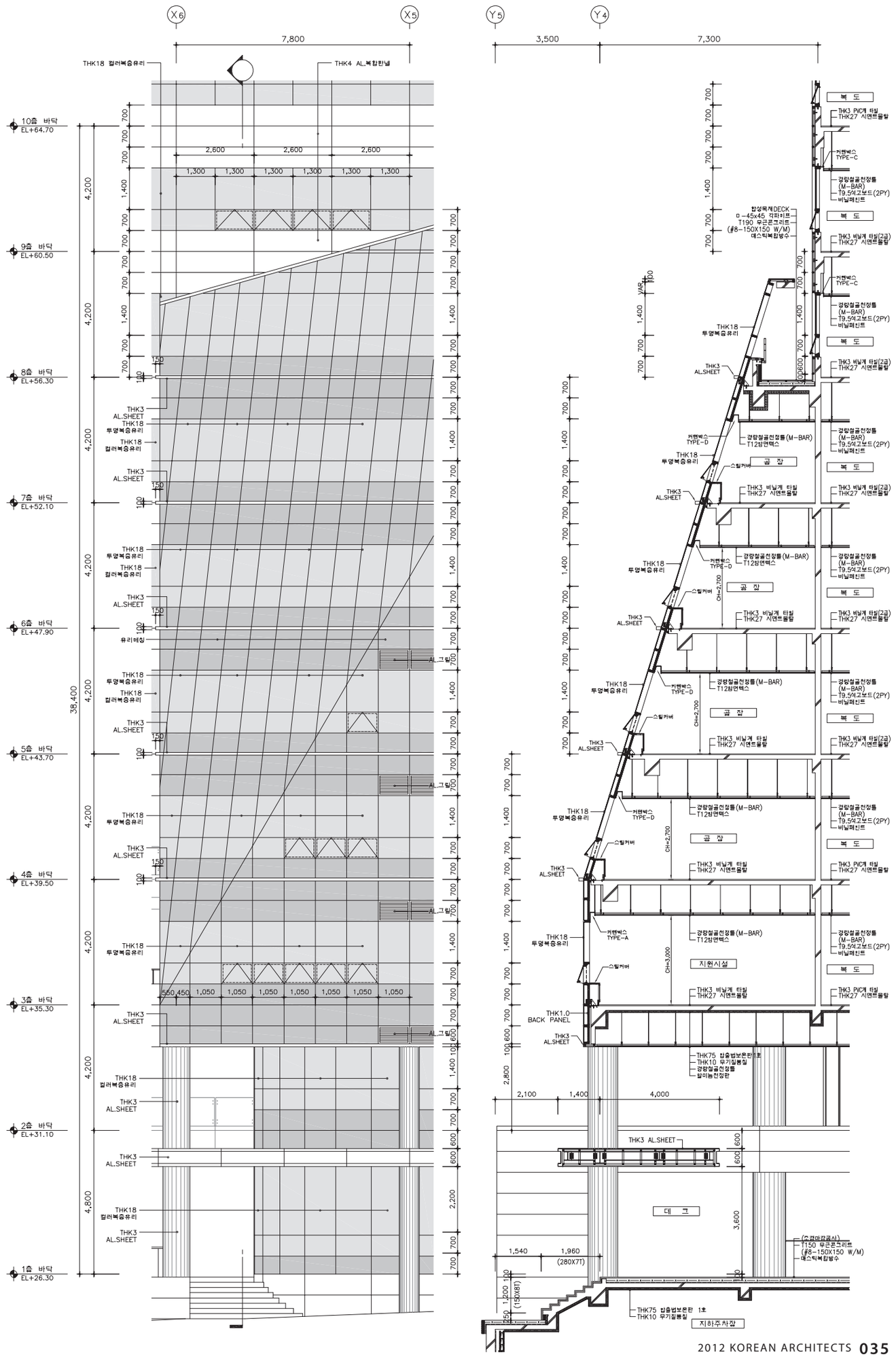
매스 디자인은 의류의 소재가 되는 실타래를 모티브로 하되 분절과 채움, 비우기의 과정을 통해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투명한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을 조화시키고 포인트 색상을 더한 입면은 건물 전체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였으며, 도로를 두고 마주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조화를 이룬다.

Dongdaemun High Clothing-Technology Center was pursued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regional economy as general support facilities to lea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ashion and design industries, and is focused on enhancing efficienc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direct shipment support system designed for the specialized objective of a fashion industrial complex.

The land is located at the center of Dongdaemun clothing trade area, a mecca for design and fashion industries, and it has a geometric shape with a width of 33 meters at maximum and a 6-meter difference of floor level at the highest. The main focus of its floor planning was on setting up an axis of planning considering the shape of the land and inducing the flows of pedestrian and vehicle traffic that adapt to the axis of the land.

Taking into account frequent shipment of commodities characteristic of companies settling in the center, business convenience was increased and overlap with the flow of pedestrian traffic was prevented by creating a separated unloading area and a parking lot. Support facilities intensively planned near the entrance are expected to secure recognition and enable efficient work performance by boosting the identity of the High Clothing-Technology Center. Moreover, rational use of space was realized through the organic connection of indoor facilities with outdoor facilities.

Mass design was motivated by a skein that is used for clothing and monotony was evaded and openness was secured through the process of disconnection, filling and emptying. The elevation that harmonizes transparent glass with aluminum panels, added with point colors, brought into being vitality and vigor all around the building, and it goes well with Dongdaemun Design Plaza across the road.


X6
X5
Y5
Y4
7,800
3,500
7,300
THK18 컬러복층유리
THK4 AL.복합판넬
10층 바닥
EL+64.70
9층 바닥
EL+60.50
8층 바닥
EL+56.30
7층 바닥
EL+52.10
6층 바닥
EL+47.90
5층 바닥
EL+43.70
4층 바닥
EL+39.50
3층 바닥
EL+35.30
2층 바닥
EL+31.10
1층 바닥
EL+26.30
38,400
THK3 AL.SHEET
THK18 투명복층유리
THK18 컬러복층유리
유리메칭
AL.그릴
THK18 컬러복층유리
THK3 AL.SHEET
THK18 컬러복층유리
THK3 AL.SHEET
THK18 컬러복층유리
THK3 AL.SHEET
THK3 AL.SHEET
THK18 컬러복층유리
THK3 AL.SHEET
THK3 AL.SHEET
THK18 컬러복층유리
THK3 AL.SHEET
복 도
THK3 PVC계 타일
THK27 시멘트몰탈
커텐박스 TYPE-C
경량철골천정틀 (M-BAR)
T9.5석고보드(2PY)
비닐페인트
합성목재DECK
□-45x45 각파이프
T190 무근콘크리트
(#8-150X150 W/M)
데스틱복합방수
THK3 비닐계 타일(고급)
THK27 시멘트몰탈
THK18 투명복층유리
THK3 AL.SHEET
커텐박스 TYPE-D
경량철골천정틀(M-BAR)
T12합면텍스
공 장
스틸커버
THK3 비닐계 타일
THK27 시멘트몰탈
CH=2,700
커텐박스 TYPE-A
CH=3,000
지원시설
THK1.0 BACK PANEL
THK75 압출법보온판1호
THK10 무기질뿜칠
경량철골천정틀
알미늄천정판
2,100
1,400
4,000
THK3 AL.SHEET
대 크
3,600
1,540
1,960
(280X7T)
(조경마감공사)
T150 무근콘크리트
(#8-150X150 W/M)
데스틱복합방수
THK75 압출법보온판 1호
THK10 무기질뿜칠
지하주차장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BUSAN CULTURAL CONTENT COMPLEX

건축주 |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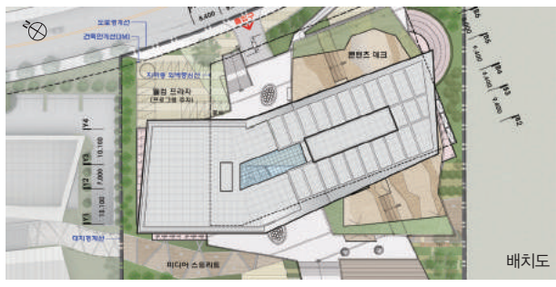
설계자 | 김동회, 허동윤_KIRA | (주)상지이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용흠, 이대혁_KIRA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오철호, 이홍식, 최성욱, 노혜영, 황혜진, 권민경, 김동균, 박애령(상지) 박내범, 송계현, 박건철, 이상훈(일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힐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보원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중앙EMC
  - 토목분야 : (주)영진기술단
  - 감리자 :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에이엔에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TEC건설, 반석건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1번지 센텀시티 내
대지면적(Site Area) | 9,895.1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952.2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808.9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0.05%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1.93%
규모(Building Scope) | B1 - 9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실외 _ THK50압출성형시멘트판, 노출콘크리트, THK4알루미늄복합패널, 알루미늄타공판, THK22,24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01.05 ~ 2009.04.05 / 2009.04.05 ~ 2009.09.05
공사기간 | 2009.12.03 ~ 2011.12.17

Client | BUSAN CITY
Architect | Kim, Dong-hoe / Heo, Dong-yun / Lee, Young-heum / Lee, Dae-hyeok
Project Team | Oh, Cheol-ho / Lee, Hong-sik / Choi, Seong-uk / Roh, Hye-young
Hwang, Hye-jin / Kwon, Min-kyeong / Kim, Dong-kyun / Park, Ae-ryoung
Park, Nae-beom / Song, Kye-hyeon / Park, Keon-cheol / Lee, Sang-hun
General Constractor | SaeHan Construction Company
Location | 1466-1, U-dong, Haeundae-gu, Busan-si
Finishing Materials | THK50. EXTRUDED CEMENT PANEL / EXPOSED CONCRETE / THK4. ACP ALUMINIUM-PERFORATED BOARD / THK22,24 COLOR-PAIRGLASS
Structure | Hill Engineering
HVAC Engineer |Jungang EMC
Electrical Engineer | Bowon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 Youngjin Engineering Corperation
Landscape Architecture | Ssamzie Engineering
Design period | 2009.01.05 ~ 2009.04.0 5 / 2009.04.05 ~ 2009.09.05
Construction period | 2009.12.03 ~ 2011.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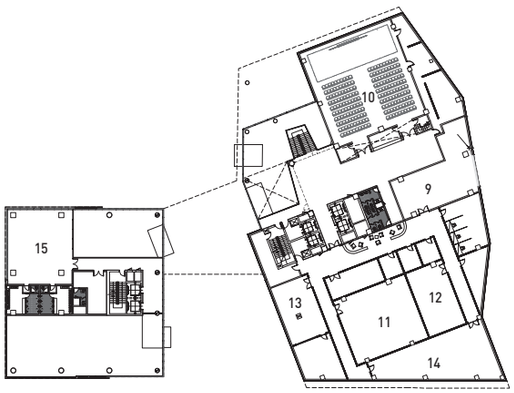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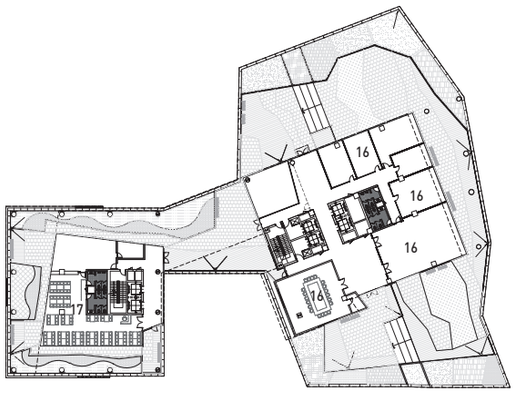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클러스터 내의 건축물이 다 지어지고 시설들이 활성화 된다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센텀의 새로운 명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장소에 지어지는 영상 클러스터는 안타깝게도 마스터플랜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각각 발주 되어왔고 종합적인 활용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수영강변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좀 더 조화되고 좀 더 연속적인 풍경이 될 수 있도록 작업에 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는 두레라움과 영화후반작업기지의 Floating되어 있는 캐노피의 흐름에 맞추어 스킨을 디자인 했으며, 영화후반작업기지의 바람길과 두레라움의 전면광장을 이어주는 미디어 스트리트를 계획하였고, 많은 주차대수를 해결하면서도 나루공원과 함께 펼쳐진 수영강의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크를 도입하는 등 가급적이면 영상클러스터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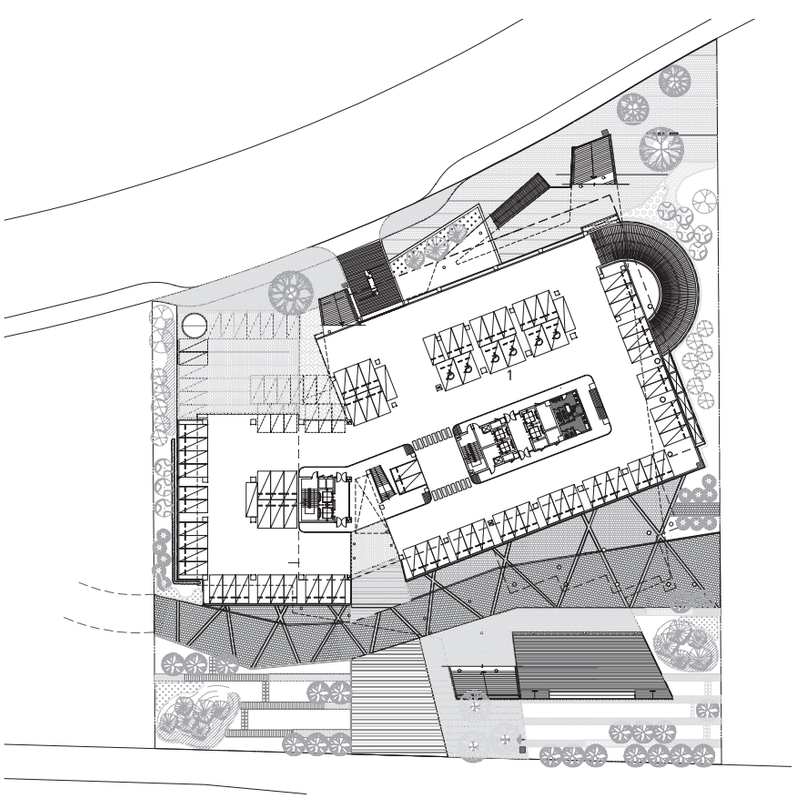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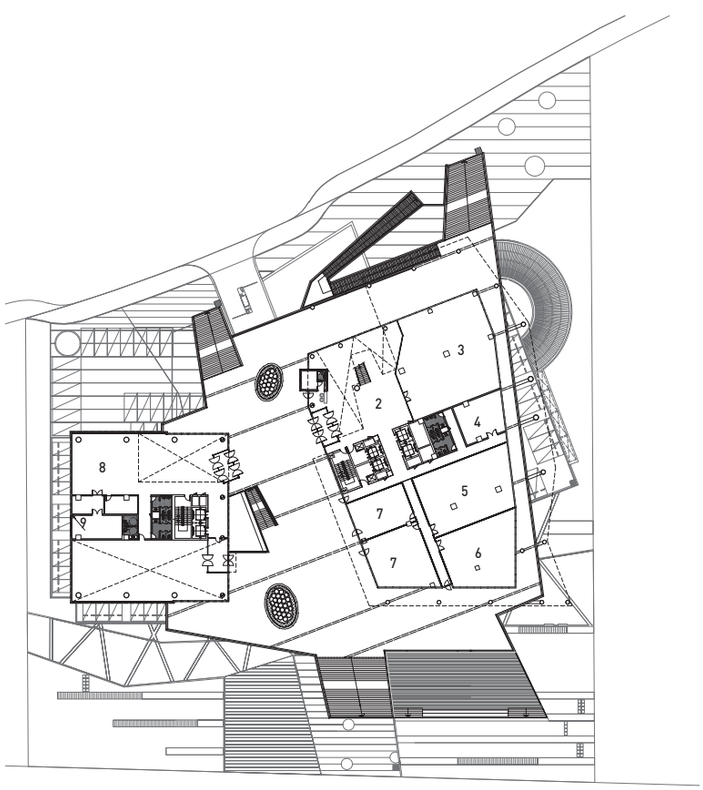


4층 평면도

01_ 주차장
02_ 로비
03_ 게임/애니메이션 체험관
04_ 통신실
05_ 자료실
06_ 운영지원실
07_ 매점
08_ 다목적홀
09_ 공조실
10_ 컨퍼런스홀
11_ 게임테스트베드
12_ 컴퓨터 & 그래픽
13_ 음향편집실
14_ 다목적실
15_ 체력단련실
16_ 회의실
17_ 일반음식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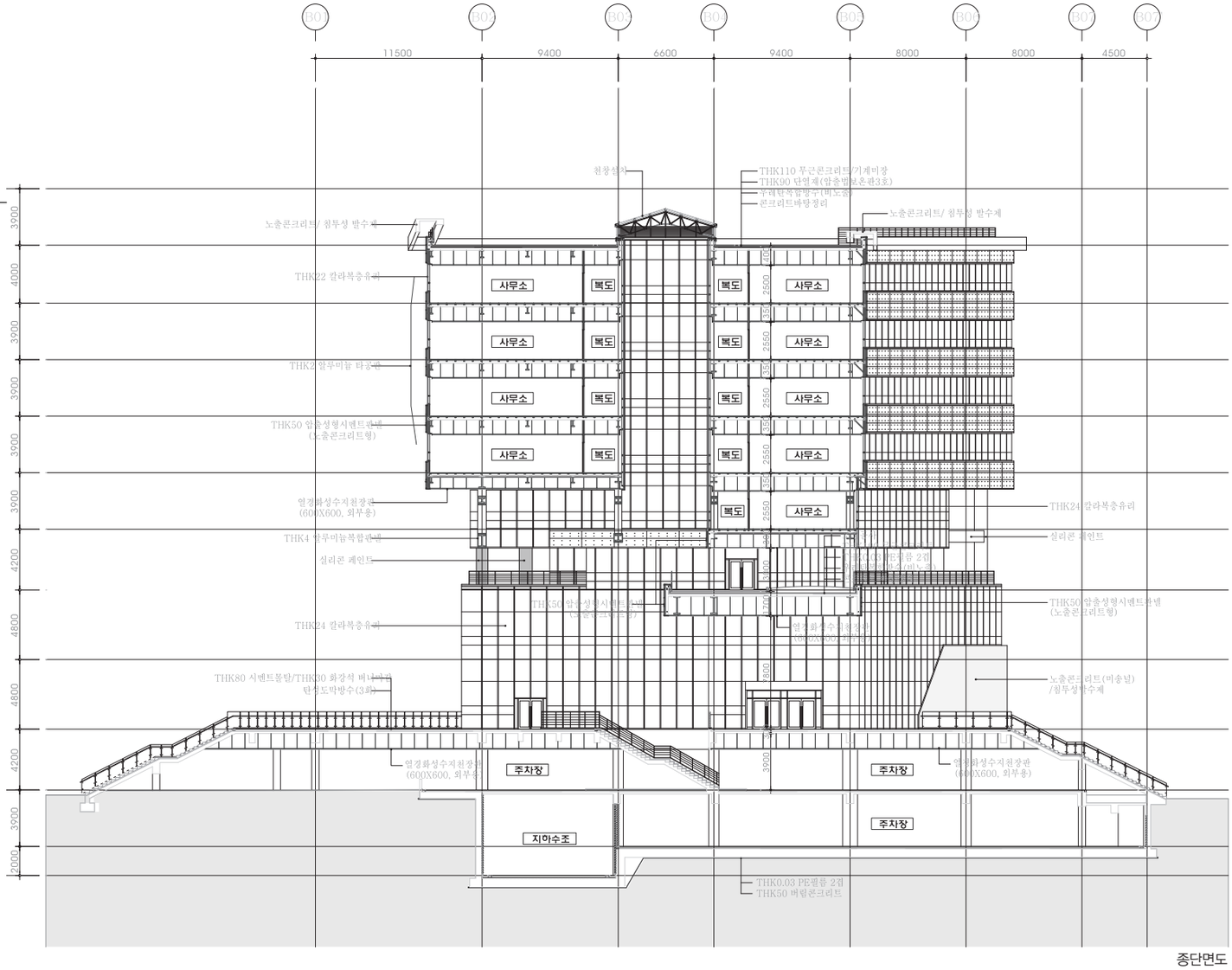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s time passes, if all of the buildings being built and all facilities being activated in a cluster, it is a new growth engine, as well as the role of Centum emerges as a new specialty of Centum.
Unfortunately The building, built on such an important place, is not accessed from the master plan. In fact, it is accessed by budget securing at the time orders came.
And there is no advantage for comprehensive plan.
So it is planed for the cluster imagining the new look of the river have a little more coordinated and a continuous landscape.As a result, it was a successful strategy.

In our Own way, we designed to match the skin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Dure La Umm and film Post-Production Base's canopy, and planed the Media Streett that connects film post-production base, the the road of wind and Dure La Umm front of the plaza. Also to solve parking problems, we adopted deck, especially, in order to maximize river views.
If circumstances allow, we focused on harmonization of the cluster.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Pension – 좋은집 채 · 나눔

PENSION CHAE-NANUM

건축주 | 임영걸

설계자 | 김향희_KIRA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 설계팀 : 김태일, 김태현

시공사 | 태성종합건설 /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대지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20–1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222.1㎡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8.9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80.6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0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76.40%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실외_외단열토탈system, 현무암, 이형블럭쌓기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03 ~ 2010.08

공사기간 | 2011.03 ~ 2011.10

Client | Rheem Young Gul

Architect | Kim, Hyang-hei

Project Team | Kim, Tae-il / Kim, Tae-hyeon

General Constractor | TAESEONG / FINE-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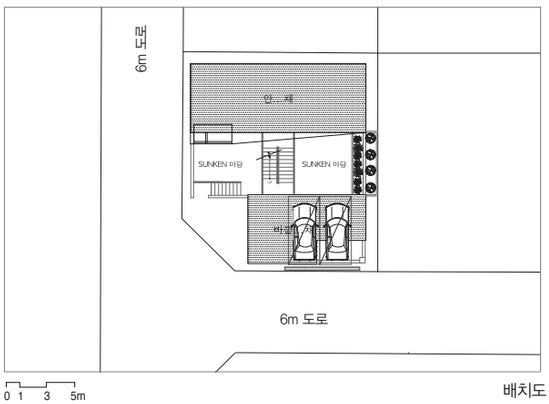
Location | 2220-1, Shinheuk-dong, Boryeong-si, Chungcheongnam-do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Total system / basanite / cement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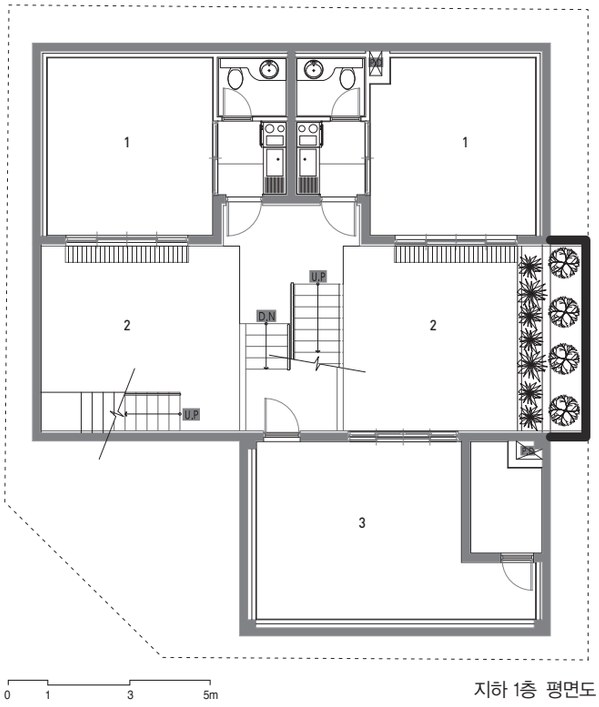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0.03 ~ 2010.08

Construction period | 2011.03 ~ 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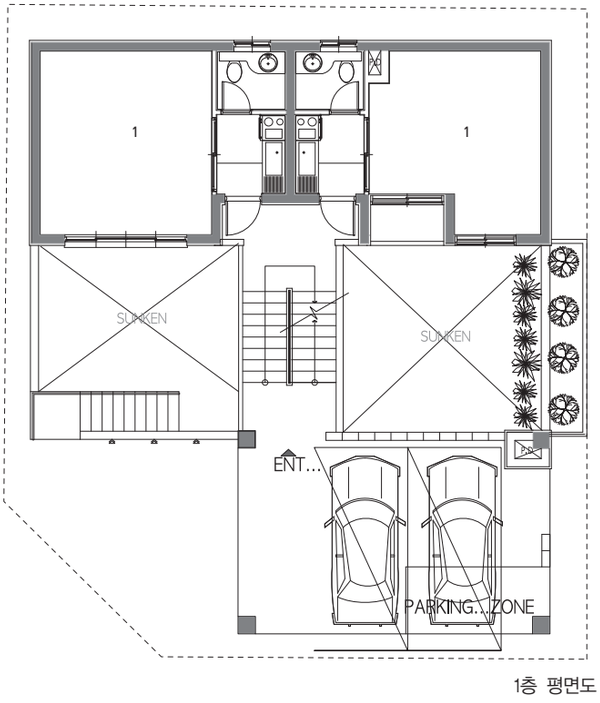


배치도

펜션
좋은집
ATTRACT
ATTRACT
펜션
좋은집
POST
션 좋은집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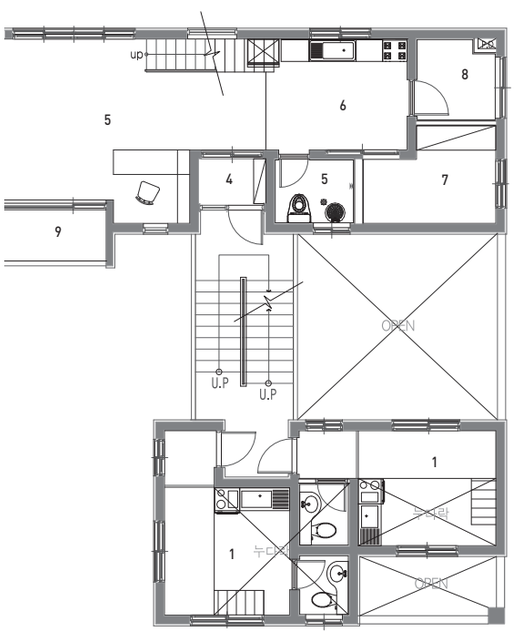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채나눔" 놓여질 자리는 이미 주변에 의해 에워싸여진 장소다.
장소는 공간으로 공간은 다시 채로 나눠 그 사이에 빛과 바람을 담아 볼 작정이다.
채는 집이나 방을 가리키는 우리 고유의 용어이고 나눔은 글자그대로 '나눈다'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여기 펜션 좋은 집에 채 나눔으로 제한된 자리에 무한하늘 공간을 열어주려한다.
다소 협소한 대지조건과 주변으로 에워싸여진 이곳에 채로 나누어 하늘과 땅을 열고 실루엣인 브리지로 층간 사이를 오르내리며 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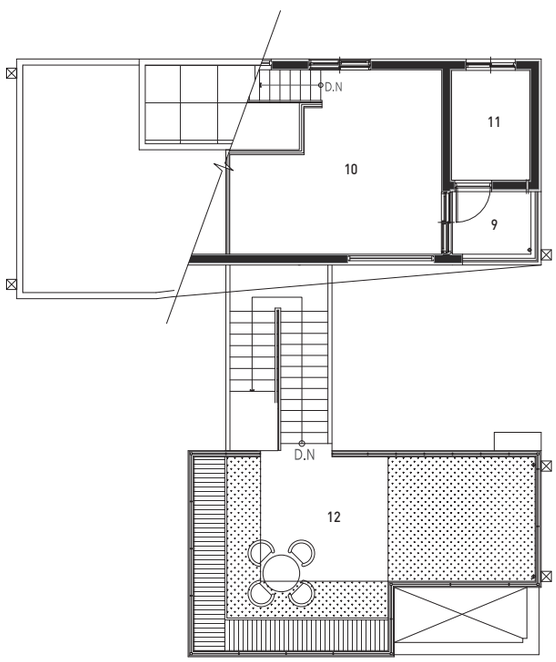
어쩌면 안채에서 떨어진 별채 사이로 살짝 비껴 앉은 바다와 석양을 담아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색은 그냥 무채색이면 어떨까?
이미 찾아온 객들의 색을 맘껏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기에….

'Chae-Nanum' the place surrounded by quality position.
Place should be divided into the space and contained the light and the wind.
'Chae' is the korean original word which means houses and rooms, and the meaning of 'Nanum' is noun of the verb.
Pension here will give you unlimited sky in this limited through Chae-Nanum.
Ground conditions and the tight siege around a bit muffled here to open the heavens and the earth remains divided into silhouette bridge going up and down between the interlayer and the men followed the light and the wind must yield.

Away from the main house, outbuildings maybe slightly deflected between the sea and the sunset sitting can be placeholders for might have been.What though thous buildings are place-colored. Rather it will help other colors brought in by guests blend in eas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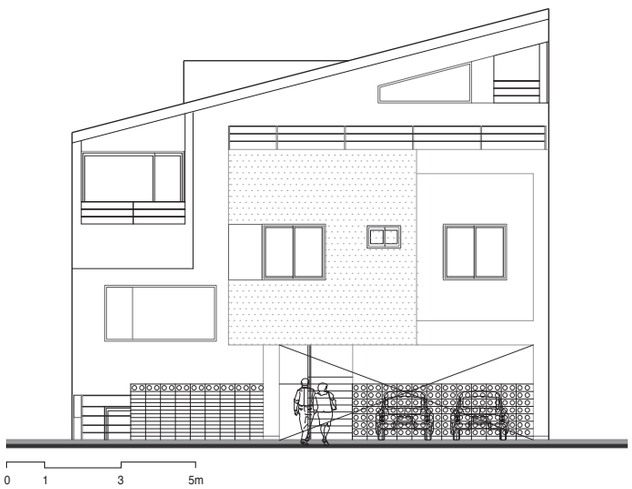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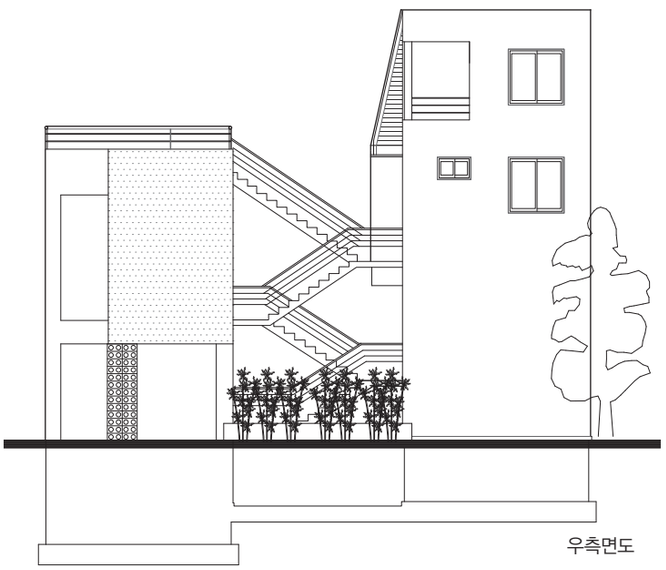


누다락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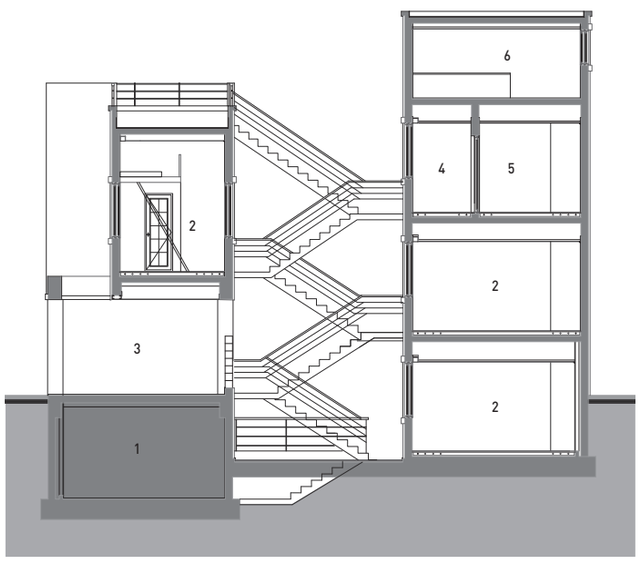
01_ 펜션
02_ 선큰
03_ 보일러
04_ 현관
05_ 거실
06_ 주방
07_ 드레스룸
08_ 다용도실
09_ 발코니
10_ 누다락
11_ 물탱크실
12_ 옥상



정면도



우측면도



0 1 3 5m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01_ 보일러
02_ 펜션
03_ 주차장
04_ 드레스룸
05_ 주방
06_ 누다락
07_ 다용도실
08_ 거실
09_ 물탱크실

남구 푸른솔 경로당
NAMGU PUREUNSOL SENIOR CITIZEN CENTER

건축주 | 부산 남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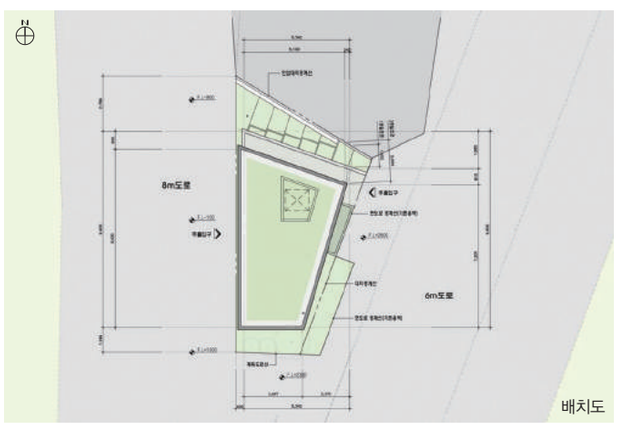
설계자 | 조서영_KIRA | 서원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최중원, 이상석, 김동구, 이경진
-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한국나이스기술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다인설비ENG

시공사 | 장문종합건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62-8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6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8.33㎡
연면적(Gross Floor Area) | 49.6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9.89%
용적률(Floor Area Ratio) | 77.51%
규모(Building Scope)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자기질아트타일, 송판노출콘크리트

Client | Busan Nam-gu office
Architect | Cho, Seo-yeong
Project team | Choi, Jung-won / Lee, Sang-seok / Kim, Dong-ku / Lee, Kyeng-jin
General Constractor | Jangmun Constraction Co. LTD
Location | 262-8, Munhyen-dong, Nam-gu, Busan, Korea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Porcelain art tile, pine board exposed mass concrete



배치도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경사지역에 스텝하우스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독특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도로가 개설되고 남은 자투리 부지에 경로당을 설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작은 규모의 건축설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프로젝트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남구에 있는 기존 경로당을 답사하고 어른들과 인터뷰한 결과 시설은 낙후 되어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특히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막걸리 잔이나 기울이는 오락의 장소인줄 만 알았던 필자의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들이 오전에 모여 매일 점심을 해드시는 곳으로 공간의 기능적 성격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옛날 우리네 밥상의 덮개인 식탁보의 조각보를 모티브로 해서 입면 패턴에 적용하였다.
입면 패턴에 색상을 재대로 표현하고자 도자아트타일을 직접 공방에 의뢰해서 채색을 하고 가마에 구워서 현장에 공수하는 것까지 할 정도로 이번 프로젝트에 애정을 듬뿍 담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해주고 소규모 건축에 대한 관심도 많이들 가지게 되어서 필자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포항 중앙도서관 _우수작

POHANG CENTRAL LIBRARY

발주자 : 포항시

설계자 : 전상훈, KIRA | 건축사사무소 효성디벨럽
우홍직, KIRA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설계팀 : 조승오, 손준벽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두루ENG
– CG : 디지털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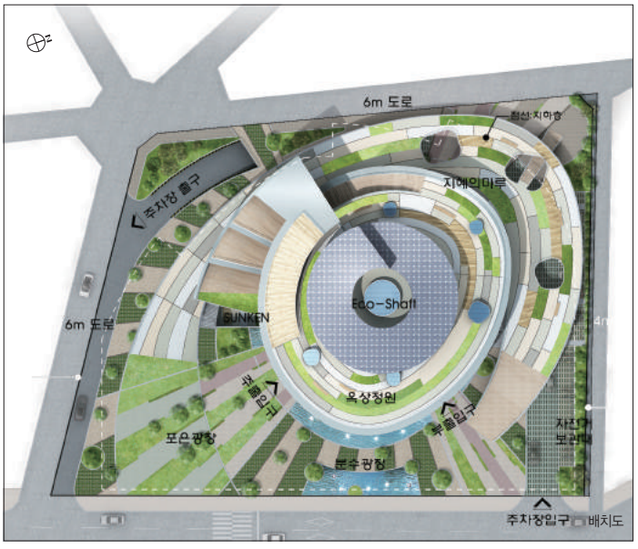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6,745㎡
건축면적 2,100㎡
연 면 적 9,871.21㎡
건 폐 율 31.13%
용 적 률 78.59%
구 조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4층

현대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전달서비스 등 전통적인 기능과 문화행사, 교육, 커뮤니티형성 등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적 허브의 역할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환경(디지털 매스미디어, 인터넷, SNS 등)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는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내부 프로그램과 공간상호간의 유기적인 복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아날로그 시대의 기존 도서관이 가지는 한계와 도전을 극복하는 도서관의 티폴로지를 바꾸는 역할을 개념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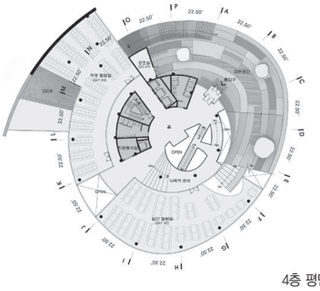
Public – Library – 시민을 배려한 외부공간 계획
포항 도심에 위치한 부지는 유입인구와 차량밀도가 높고, 도로(25m)또한 비교적 좁아서 기본적으로 보,차분리를 하고 주접근로의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순환형 주차동선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정방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부지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방향에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부지 전체를 open space 및 녹화를 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계획함으로 시민들의 평등한 정보접근과 평생교육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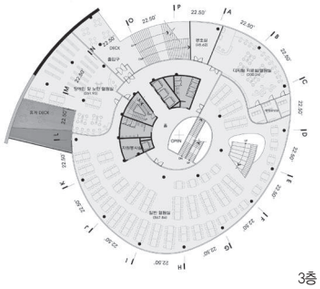
Open plan – 유니버셜디자인을 수용하는 기능계획
기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공간구성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능한 가변적공간을 계획하고 각층 내, 외부를 연결하는 데크를 형성하여 개방적인 평면과 자연과의 소통을 이루었다. 평면조닝으로 크게 1층을 중심으로 도입부(어린이와 부모, 이용자 커뮤니티), 도서관의 역할부분(2, 3, 4층), 문화행사, 교육 등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부분(지하층)으로 구분하였다.

매스(Mass) 및 입면계획
지식을 쌓아가며 변화되는 모습을 상아탑에 비유하여 수직적으로 점점 상승하는 매스를 포항의 역동적인 미래와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책장에 꽂힌 책들의 다양한 색체와 두께와 형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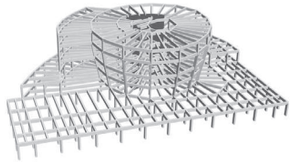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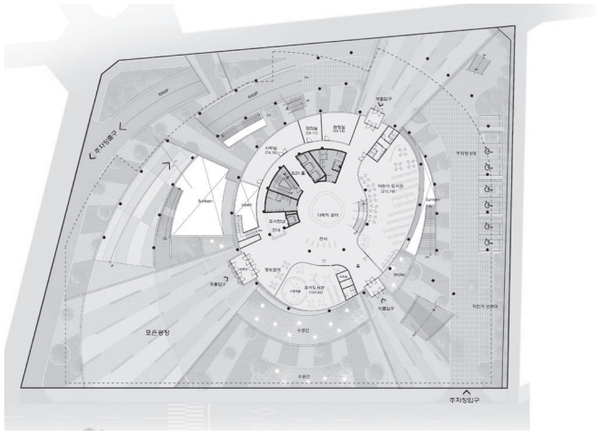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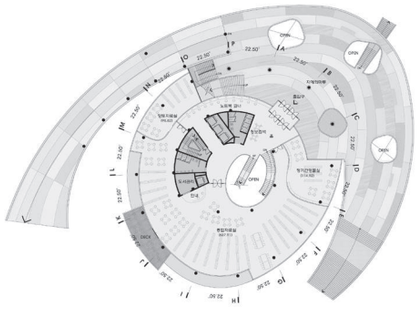
구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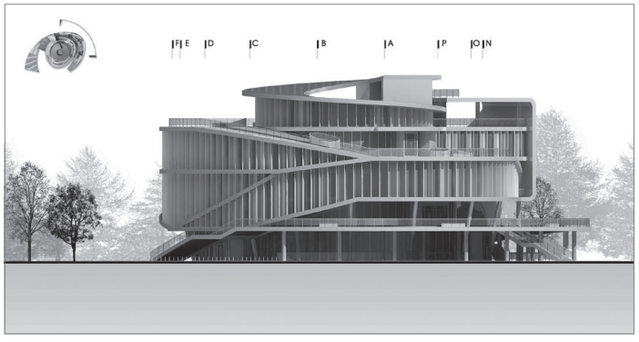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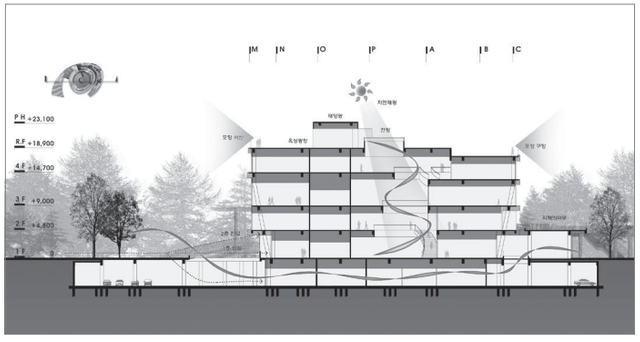
- 합리적인 스판계획으로 공사비 절감
- SRC구조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매스 형성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포항 중앙도서관 _가작

POHANG CENTRAL LIBRARY

발주자 : 포항시

설계자 : 윤철준, KIRA | (주)삼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윤성식, 이보영, 서정인, 조성현, 황효선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범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우보전기
– 기계설비분야 : 삼정설비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6,815.00㎡
건축면적 3,324.70㎡
연 면 적 9,941.82㎡
건 폐 율 49.00%
용 적 률 114.1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6층

"선비(SUNRISE+FLY) For NEW PARADIGM LIBRARY"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도서관 조성으로 지식과 문화들을 습득하고 미래를 향한 포항시민의 공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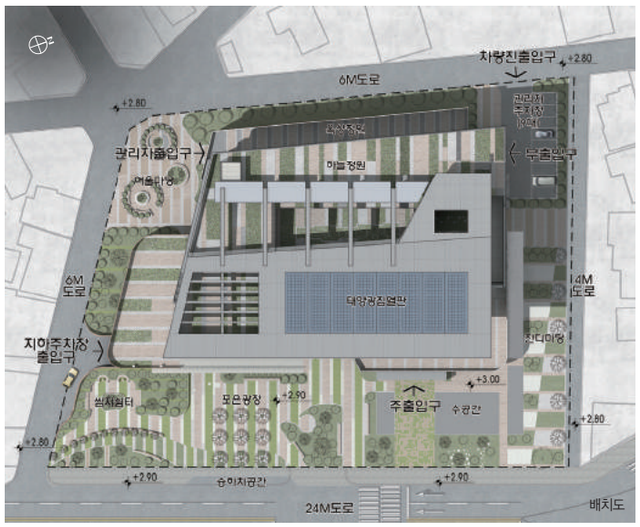
- 통섭의 공간 / 지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통섭의 공간
- GREEN NETWORK / 도심 속에서 지역주민과 자연을 통해 하나되는 공원 속의 도서관
- SMART U+ SCAPE / 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도서관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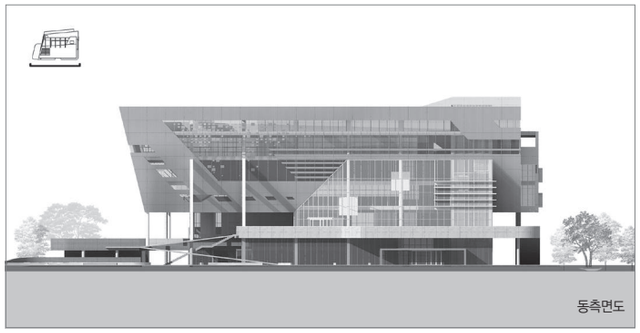
- 계획부지 내에 도서관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공간 배치 적용
- 지역민을 위한 저층부 Open Space 확보를 통한 도시 비움 (도심 속 소공원 연출)
- 도시맥락을 수용하면서 수도산과 동빈내항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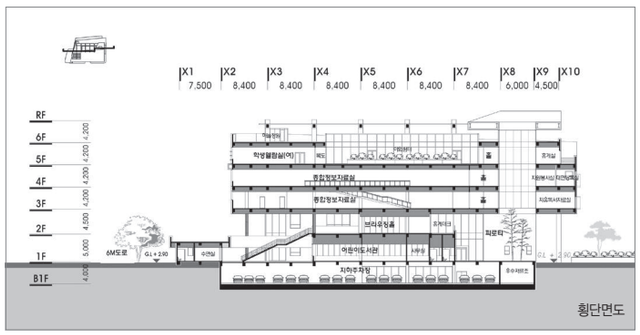
평면계획

- 도서관 영역과 문화 및 커뮤니티 영역의 구분과 연계를 고려한 층별 조닝으로 효율적인 평면 계획
- 친환경적인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의 내부유입을 유도하고 옥외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공간의 이용성 및 장애인 편의성을 고려한 Core계획
- 다양한 진입동선 및 외부 조경 계획을 통한 진입부 커뮤니티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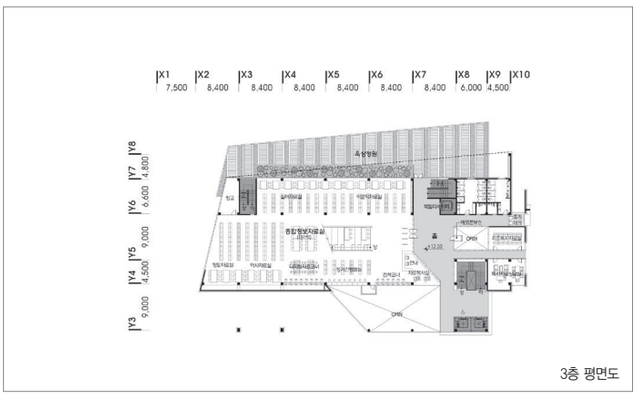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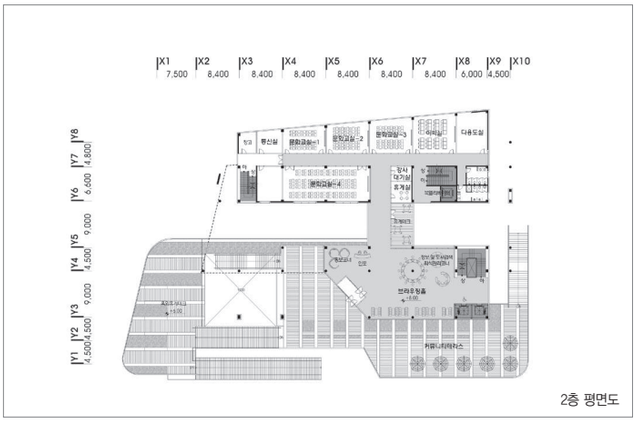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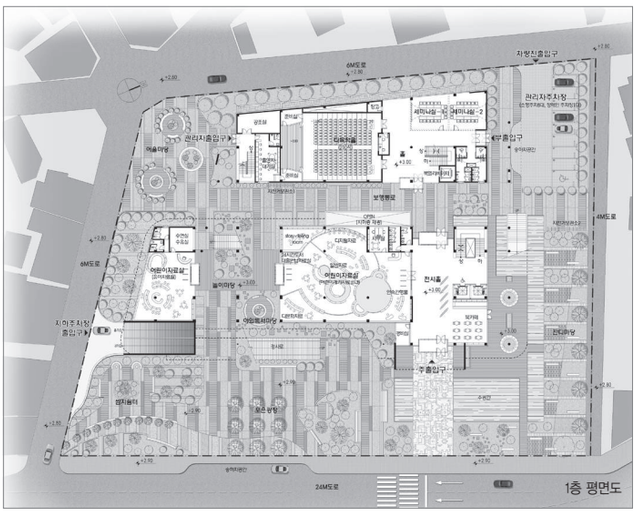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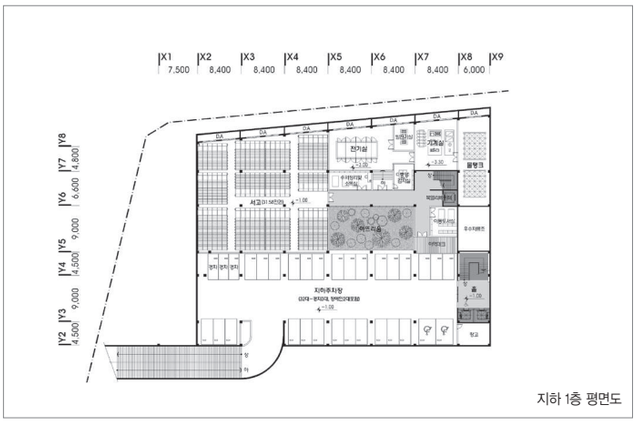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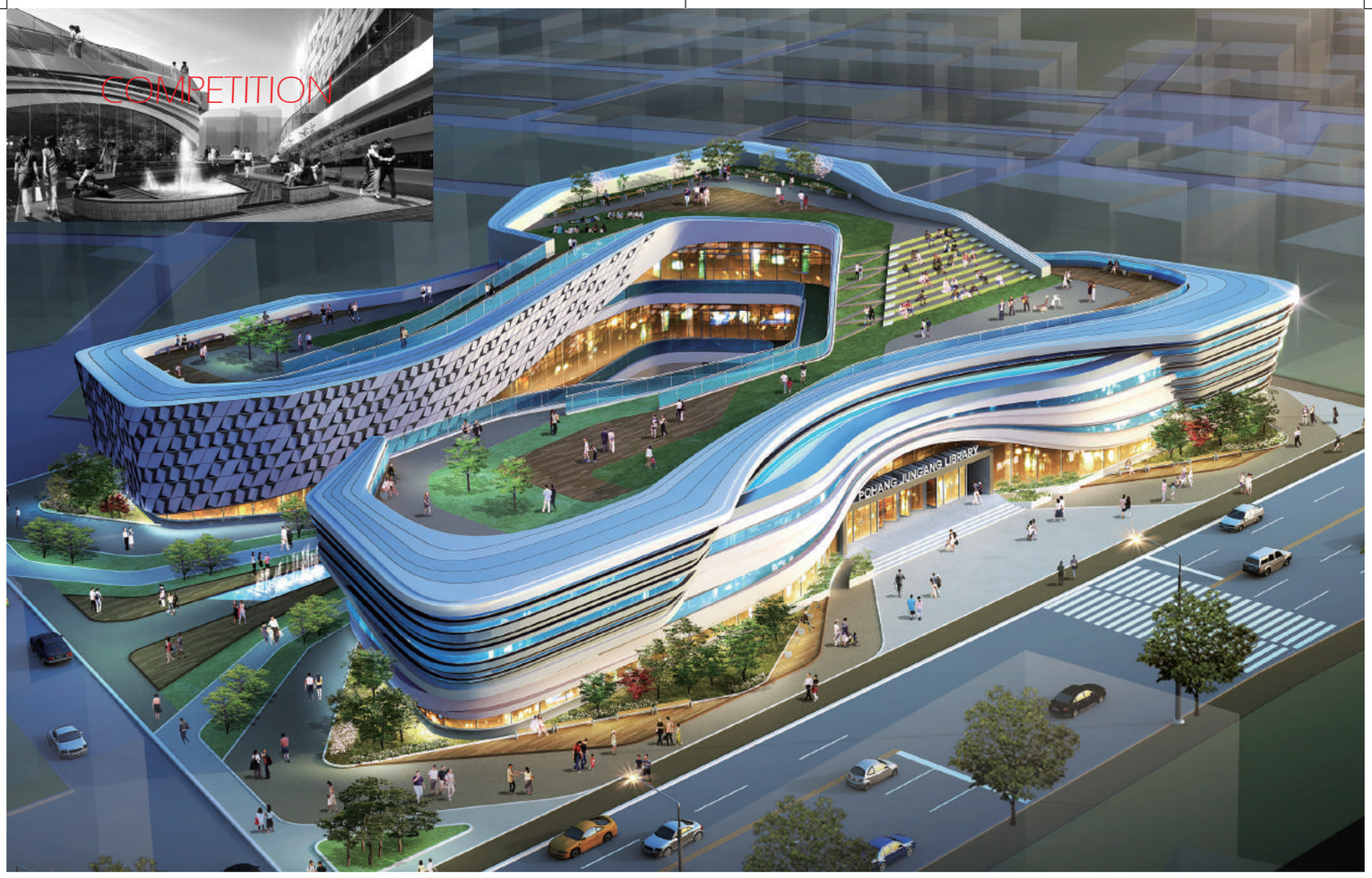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포항 중앙도서관 _가작

POHANG CENTRAL LIBRARY

발주자 : 포항시

설계자 : 이희재, KIRA | EG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조창희, 김극락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대지면적 6,815㎡
건축면적 3,420.48㎡
연 면 적 9,884.35㎡
건 폐 율 50.19%
용 적 률 100.06%
구 조 철골조(친환경 철골조 공법), 일부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3층

문화와 정보가 흐르는 도시속의 정원

도시에서 발산되는 '미래지향적 흐름(Digital Flow)'과 포항시가 품고 있는 '자연환경(Nature Flow)'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관(Landscape)'을 형성한다. 자연의 켜와 도시의 켜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문화공간을 담아내는 그릇이 형성되고, 켜가 맞닿아 생기는 공극은 사람, 자연 그리고 문화의 '교류의 장(Community Valley)'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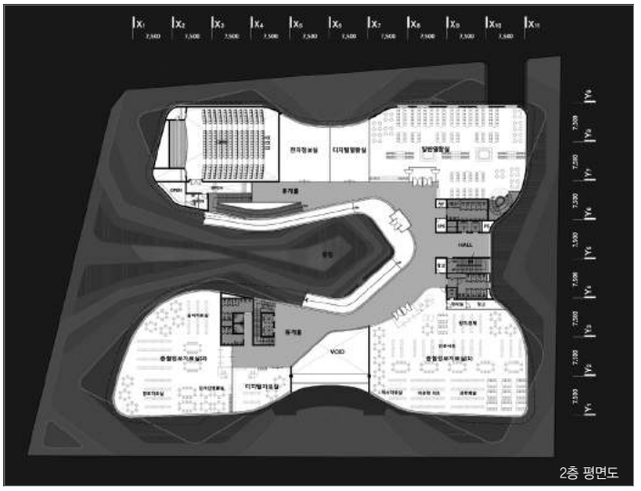
건물에 대한 인상적인 형태는 '도시와 내부연결'에 대한 관심으로 계획대지에 순응하여 '수평흐름'을 테마로 저층형 도서관을 계획함으로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변에 동화되도록 계획하였다.

층과 층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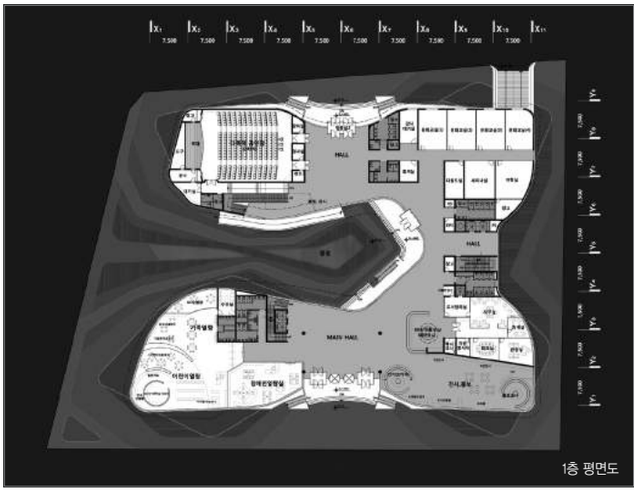
정보화시대에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중앙도서관은 portal stage라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과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다.

portal stage는 1층, 2층, 3층을 각각의 기능 및 전체에 걸쳐진 체험의 공간을 말한다. 수직적공간과 수평적공간이 교차하며 이에 따라 각층의 성격을 부여한다. 각 stage는 공간의 성격상 function, communication, reference, rest로 나눠지며 층과 층의 상호작용에 의해 portal stage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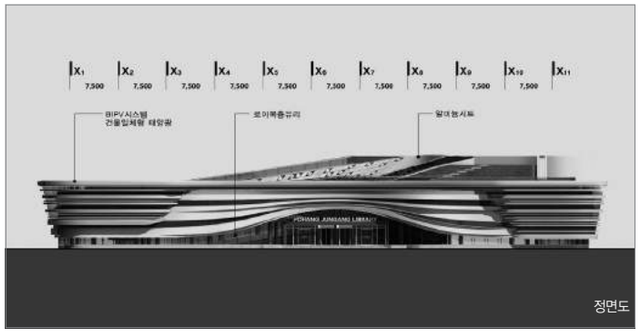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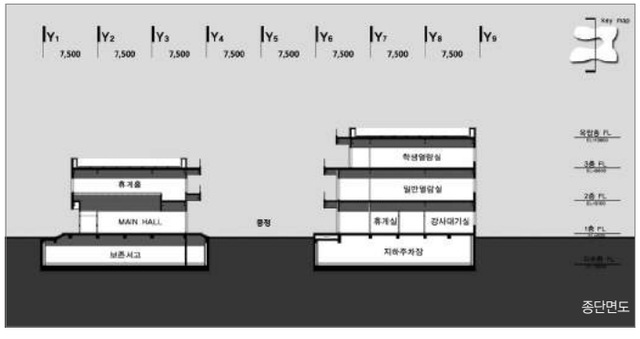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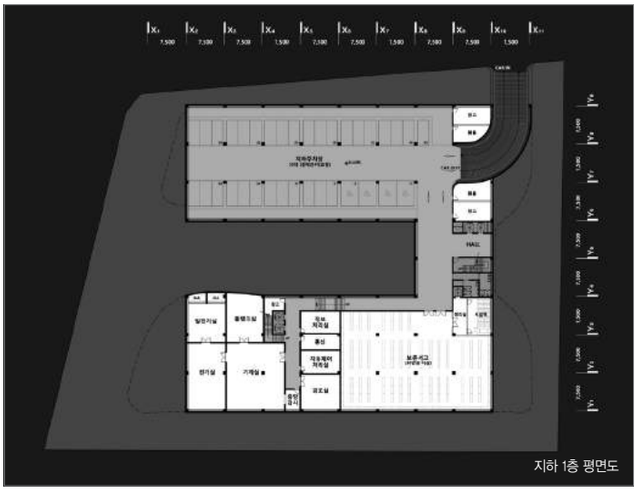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면도



종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COMPETITION

센텀119안전센터 _당선작

A BIG HUG FOR THE CENTUM CITY

발주자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계자 : 최광식, KIRA | 건축사사무소 맥
설계 : 권윤경, 이동림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유진구조이앤씨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광명토탈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나인설비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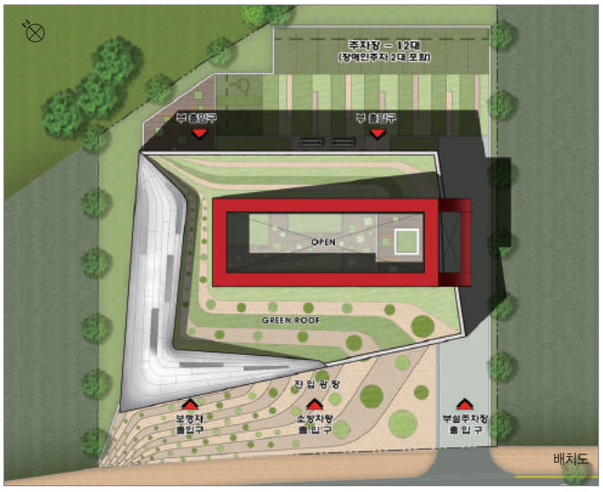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119 안전센터)
대지면적	2,064.00㎡
건축면적	678.33㎡
연 면 적	1,574.23㎡
건 폐 율	32.86%
용 적 률	76.27%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3층

배치계획
- 기존 가로의 흐름을 수용하고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하여 대지의 전면에 진입광장을 확보하였다.
- 대지의 북측에 걸쳐있는 철로(완충녹지) 부분에는 차폐식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 모든 사무공간, 대기공간은 남측으로 열린 향과 조망을 확보하였다.

목적

센텀지역의 소방수요(인구증가) 급증에 따른 소방사각지대 해소와 초고층건물 증가 및 제2벡스코 건립, 영화의전당 신축 등 특화된 안전관리에 대응하고,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센텀시티의 입지여건, 소방(119)의 상징적 이미지의 디자인과, 긴급출동이 용이하고 직원들이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각실 용도 및 층별 면적 산정
- 119 구급대와 소방안전센터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여 조직별 기능을 만족하고, 기능별 평면계획이 구분되면서도 전체 시설을 함께 수용하며, 개별기능의 중복과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명확하게 계획
- 근무인원(소요인력) : 43명(예정) ⇒ 3교대 24시간 상주(15명 내외)
  - 대장 1명, 고성능소방펌프차 12명, 초대형굴절사다리차 6명, 구조공작차 12명
    구조운반차 6명, 구급차 6명
- 건축물 용도, 인력 장비수용, 각 실별 기능 등을 만족하는 계획
-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의 ± 5% 이내 증감이 가능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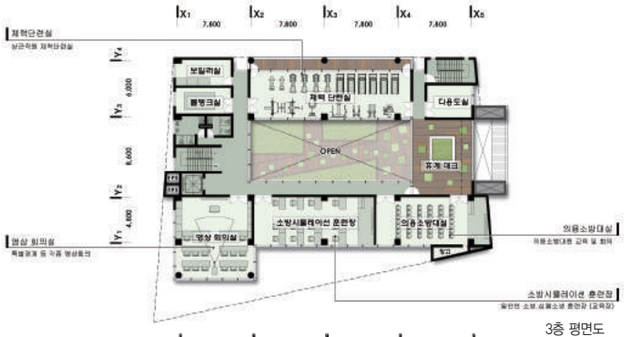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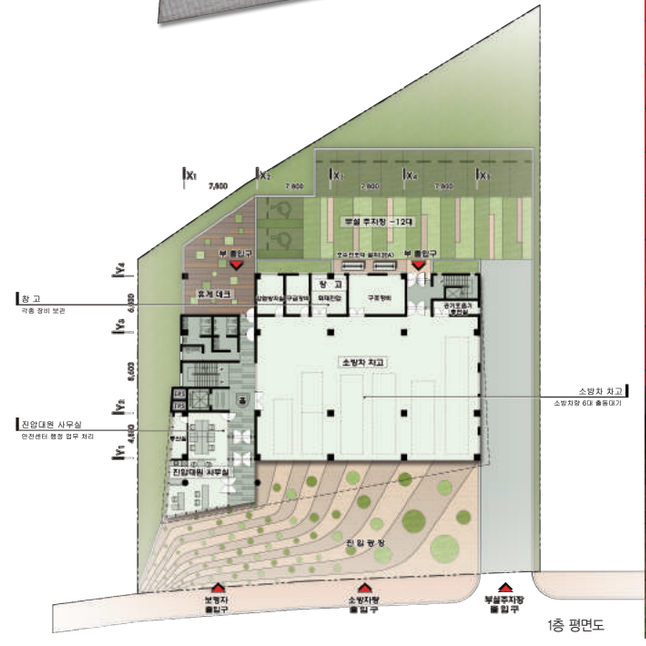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COMPETITION

센텀119안전센터 _우수작

A BIG HUG FOR THE CENTUM CITY

발주자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설계자 : 공부성 | 루가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오승한, 윤지웅,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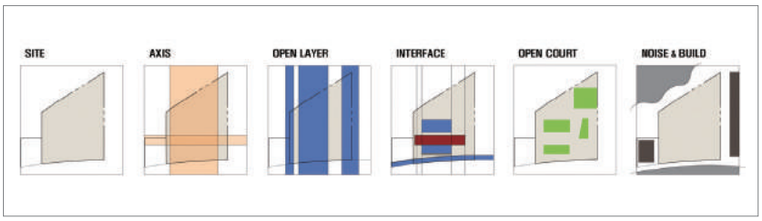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부흥E&C
– C.G : HOW 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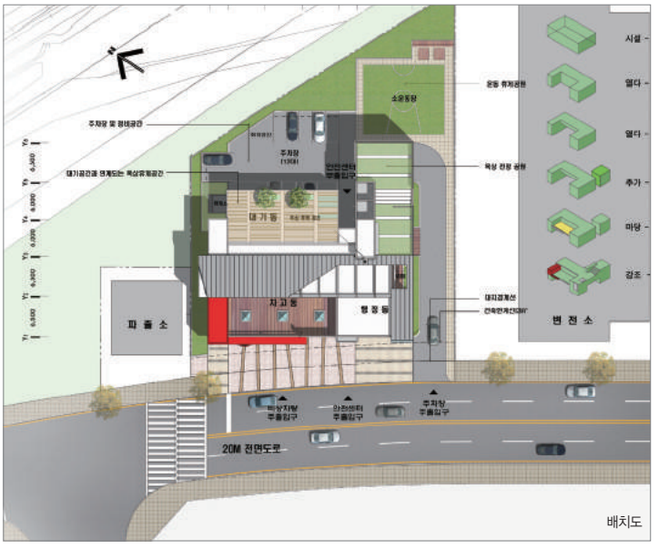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공청사(119안전센터)
대지면적 2,064.00㎡
건축면적 835.50㎡
연 면 적 1,563.10㎡
건 폐 율 40.48%
용 적 률 75.73%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3층

센텀시티 내의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을 맡은 안전센터의 역할
– 그 다양한 건축물의 얼굴을 건물형태에 담아 본다.
센텀시티 내의 그 많은 이야기와 사건을 덩어리화 해서 Mass를 조합하여 안전센터 전체 형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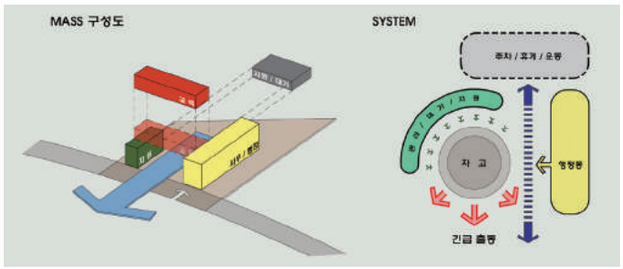
닫혀 있는 파사드로 인해서 가로와 단절되는 안전센터의 성격을 열린 소방서의 이미지로 바꾸어 센텀시티 안에서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열린 소방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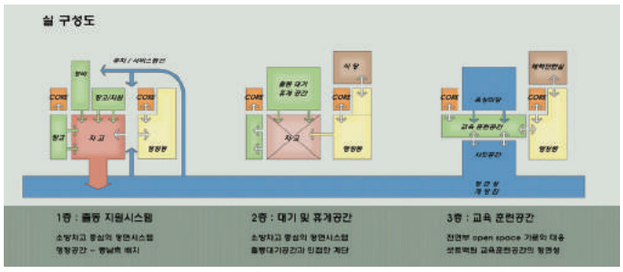
지원역할과 행정동 사이의 열린 공간(소방차고)이 중앙의 핵심이 되는 둘러싸인(hug–안전, 보호) 형태의 소방서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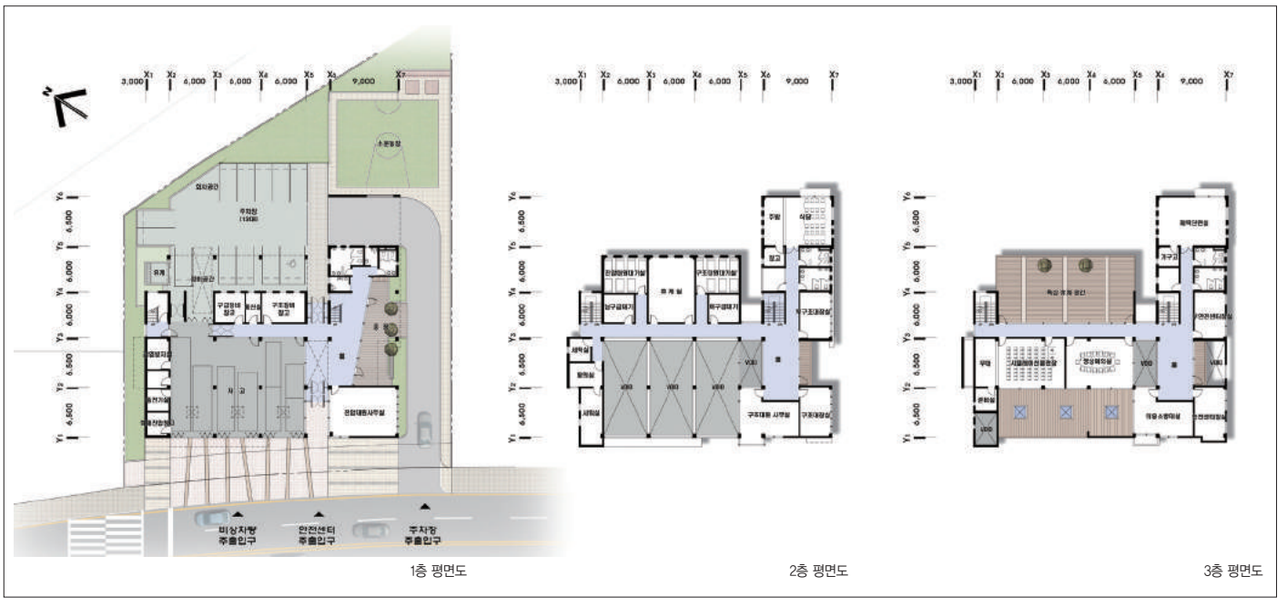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www.kirakarb.or.kr

광고게시물

건축사자격제도 안내

Information of Architect Qualification Law

2012. 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KARB
Korea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건축사자격제도 개요

■ 2012년 5월 3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사자격제도는 건축설계 시장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사의 양성단계부터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활동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게끔 하기 위한 자격제도 입니다.

■ **「건축실무에 있어 전문인의 국제기준 권고안에 대한 UIA 협정」**은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시 이를 협정 초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 UIA 협정**
>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건축교육과정의 변경, 건축사시험방법, 과목변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5월 30일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반영한 건축사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우리 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위탁 하였습니다.

건축사자격제도의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 **기존제도는**

교육이수 ➡ **예비시험** ➡ **경력관리**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건축사업무** 를 거치도록 하여 학력, 실무경력의 요건과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도 단기간 기계적 학습을 통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변경되는 제도는**

교육이수 ➡ **실무수련** ➡ **자격시험** ➡ **자격취득** ➡ **자격등록** ➡ **실무교육** ➡ **갱신등록**
으로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UIA 국제권고안을 기준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수련

실무수련

실무수련이란 무엇일까요?

실무수련은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있는 건축사를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는 누구인가요?

- 건축학인증 학위과정 5년제 졸업자 및 8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대학원 : 건축전공 학사인 경우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 학사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

※ 건축학 비인증 과정 졸업자(2023년까지 유예) : 실무수련 4년

실무수련자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나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예비시험 :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건축사자격특별전형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4년제 건축분야 전공자가 실무수련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무수련자에 대한 자격은 5년제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해당 학위 이수자로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전공자는 대학원진학 또는 편입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건축대학원은 어디를 말하나요?

건축대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을 말합니다.

실무수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무수련을 신고하고 3년 이상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수련내용을 16가지 수련항목별로 465일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소 속 : 건축사사무소
- 기 간 : 3년 이상
- 신고내용 : 참여사업에 대해 16가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

실무수련 대상자별 실무수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5년제 과정인가? 건축대학원 과정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인증, 비인증 여부에 따라 3~4년으로 각각 실무수련기간이 다릅니다.
- 이에 따른 실무수련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인증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

구 분	실무수련기간	인증여부	비 고
인증학위	3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비인증 학위	4년	①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④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2023. 12. 31 까지 이수한 자

실무수련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실무수련제도는 2012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이 실무수련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가장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수련은 신고시점부터 실무수련으로 인정됩니다.
- 5년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경력이 있는 자도 실무수련 신고시점에 따라 인정 환산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은 인정 되나요?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 합니다. 다만, 2012년 5월 31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퇴사일 이전은 80%, 실무수련 신고 이후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합니다.

건축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건축경력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건설회사 등에서의 건축경력은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등이 있어야만 10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실무수련 신고는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수련신고서 작성

- 신고서식 : 실무수련신고서(규칙 제10호 서식)
- 신고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www.kirakarb.or.kr)

↓

신고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신고수수료 : 100,000원

↓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건축학학위과정 이수증명서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진(반명함판) 2매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접수 및 확인

- 협 회 :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인정학력 확인

↓

실무수련신고확인증 발급

- 협 회 : 실무수련신고확인증(규칙 제13호 서식) 발급
- 신 고 자 : 전산출력 가능

감독건축사는 누구인가요?

- 감독건축사는 건축사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를 말합니다.
-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2012. 5. 31 ~ 2013. 5. 30까지 1년 동안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확인서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무수련자는 언제든지 실무수련사실을 실무수련확인서에 작성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수련확인서 작성
- 신고서식 : 실무수련확인서(규칙 제14호 서식)
- 신고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www.kirakarb.or.kr)

⬇

실무수련확인서 확인
- 확인방법 : 감독건축사의 전자서명

⬇

접수 및 확인
- 참여사업 확인 및 기재사항 이상 유무 확인

⬇

실무수련자명부 등록
- 협 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실무수련자 : 실무수련자명부(규칙 제11호 서식)을 통해 자신의 실무경력 확인 가능

⬇

실무수련완료증명서 발급
- 협 회 : 실무수련 완료시 실무수련완료증명서 (규칙 제15호 서식) 발급
- 실무수련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자격등록이란 무엇일까요?

- 건축사자격등록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축사협회)에게 등록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 그 동안 건축사자격 취득자 관리는 국토해양부, 건축사업무신고 관리는 각 시 · 군 · 구 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축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는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건축사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손쉽게 알 수 없었고, 국가입장에서는 건축사라는 국가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국제 경쟁력 및 국가발전계획에 저해요소로 작용 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작하려는 모든 건축사를 말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 대상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여타 분야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

건축사자격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 이전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2012. 5. 31 ~ 2013. 5. 30 까지 1년 이내에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업무 (건축사법 제19조 관련)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 「건축법」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 · 관리,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건축법」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자격등록 시에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건축사실무교육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입니다. 다만,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자격등록 시에도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별 실무교육 이수시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기 간</th><th>교육이수시간</th></tr>
<tr><td rowspan="4">건축사자격 취득자</td><td rowspan="2">2012. 5. 30 이전 자격취득</td><td colspan="2">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td><td>없음</td></tr>
<tr><td rowspan="2">2012. 5. 31부터 1년 (유예기간) 초과</td><td>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td><td>없음</td></tr>
<tr><td rowspan="2">2012. 5. 31 이후 자격취득</td><td>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td><td>12시간</td></tr>
<tr><td colspan="2">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td><td>없음</td></tr>
<tr><td rowspan="2">건축사자격 취소자</td><td colspan="2">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td><td>12시간</td></tr>
<tr><td colspan="2">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td><td>없음</td></tr>
<tr><td rowspan="2">건축사자격 등록 취소자</td><td colspan="2">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td><td>12시간</td></tr>
<tr><td colspan="2">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td><td>없음</td></tr>
<tr><td colspan="2">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td><td>12시간</td></tr>
</table>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등록신청서(규칙 제17호 서식)
• 신고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www.kirakarb.or.kr)

↓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수수료 : 200,000원

↓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건축사자격증 사본
  – 건축사윤리선언서(규칙 제18호 서식)
  –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건축사법 제3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사진(반명함판)1매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접수 및 확인

• 협 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유무확인

↓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 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사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 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대상자는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5년의 기간이 도래한 자를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6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교육 미 이수자 교육이수 시간

구 분	기 간	교육이수 시간
5년 내 60시간 미 이수자	없 음	미 이수시간 교육이수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는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시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 건축사자격갱신등록신청서(규칙 제17호 서식)
- 신고방법 : 인터넷 작성제출 (www.kirakarb.or.kr)

↓

등록수수료 납부
- 인터넷 결제시스템 또는 계좌송금 이용
- 등록수수료 : 100,000원

↓

첨부서류 접수
- 첨부서류 :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19호 서식)
- 접수방법 : 인터넷, 우편, Fax 접수

↓

접수 및 확인
- 협 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기재사항 이상 유무 확인

↓

건축사자격등록원부 등록
- 협 회 : 전산등록, 전산처리
- 신청자 :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실무교육 이수사항, 자격등록 갱신사항 등을 확인 가능

↓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
- 협 회 : 건축사자격등록증(규칙 제20호 서식) 발급
- 신청자 : 전산출력 가능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사 실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사 실무교육이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 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 실무교육은 윤리교육, 전문교육 및 자기계발로 구분하며, 실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활동참여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의 종류 및 방법

종 류	내 용	교육방법
윤리교육	건축사의 윤리 교육	집체교육
전문교육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자기계발	건축사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건축사 실무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축사 실무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 시간 · 방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건축사 실무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시 · 도건축사회 포함)에서 실시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윤리교육, 전문교육은 실무교육실시기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로 이수결과를 일괄통보 하므로, 건축사 개인이 실무교육 이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기계발은 활동참여 후 건축사 개인이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5년 내 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이수증명서(규칙 제43호 서식)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된 실무수련,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사의 양성단계부터 건축사 자격취득 이후 건축사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업무내용

- 실무수련자의 관리
- 건축사자격등록의 관리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관리
-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 및 개인별 이수현황 관리

미국의 NCARB, 영국의 ARB, 프랑스의 CNOA, 중국의 NABAR 등이 이번에 출범한 건축사등록원(KARB)과 성격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각국이 UIA권고기준에 따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KARB
Korea 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1동1603-55 건축사회관9층
www.kirakarb.or.kr / Tel : 02-3415-6885~8 / Fax : 02-3415-6855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두 번째 이야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_The Second Story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지난번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지방건축사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라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사회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축사회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아래에서는 다른 협회 또는 조합들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사협회 또는 건축사회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처럼,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액수 또한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주요 유형사례 1 : 가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수수료를 2배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소속회원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행위(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대행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인 대행사업자 등에 통보한 행위(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 부산광역시가스판매협동조합이 소속조합원에게 판매가격표를 배포한 행위(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두264 판결)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조합 등이 관할지역의 보험차량 정비요금을 동일하게 인상하여 받기로 결의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누2948 판결)
-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 학교급식용 조리기구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부산지역 구성사업자들에게 계약단가 이하의 금액으로 응찰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한 행위(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098 판결)

주요 유형사례 2 :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

-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약국 휴업 및 폐업행위(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909 판결),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아래의 3유형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음
- 대전광역시자동차매매조합이 신규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자동차매매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98누14084 판결)
-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의 경쟁사업자의 고철업 참여를 방해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전기로 업체에 대하여 납품을 중단하도록 결의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9누6332 판결)

주요 유형사례 3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행위(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휴무를 강제하도록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9579 판결)
- 대구유치원연합회가 원아모집과 관련한 홍보방법과 시기를 제한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7. 1. 11. 선고 2006누653 판결)
- 한국결혼상담소협회가 휴무일의 준수 및 협회차원에서 하는 캠페인에의 참여를 강제한 행위(대법원 1999. 12. 13. 선고 99두8626 판결)
- 울산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사회를 통해 증차심의제를 운용하기로 결의하고 제재를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604 판결)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심사의 범위와 대상

The Recipient and Range of Evaluation of Moving-In Resident Registration Notification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실관계

(1)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 소재 '잔디마을'은 1984. 5.경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거주지를 잃은 도시빈민들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2) 원고는 1994. 9.경 잔디마을 8호로 이사한 이래 판자패널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부엌, 방 2개, 세면장 등으로 구성된 10평 정도의 건축물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다.

(3) 잔디마을에 1987년 전기시설이, 2004. 8.경 수도시설이 가설되었고, 잔디마을 일대는 2007. 6. 11. 장기전세임대주택 예정지로 용도전환이 되었다.

(4) 원고는 2007. 4. 2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2동장에 세대주 자격으로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양재2동 212 일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사용승낙, 이주대책 요구 등 문제가 있어서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5) 주민등록 전입신고 불수리에 따라 원고와 가족은 학교 입학, 우편송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잔디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인근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 하는 방법으로 교육, 건강보험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 대법원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하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부동산 투기,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판례 평석

본 판결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인정하면서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을 통해 심사의 범위 및 대상을 한정한 본 판례의 취지에 동의한다. 판례는 투기, 이주대책 요구 등 방지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 2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확정되었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4기 수료하였다.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을 지냈으며,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신기술 기초보강 방법
(피사의 사탑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New Foundation Enhancement Technology for Architectural Remodeling

조현군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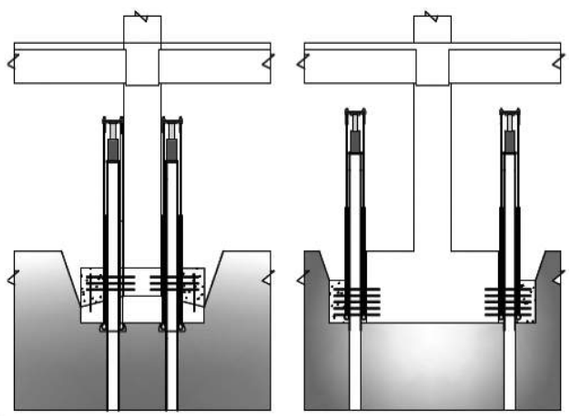
최근 들어 건축의 화두가 환경 및 그린(Green)이란 말에 많이 쏠려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축시장에서도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리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들도 전면 철거에서 기존 환경과 건축물을 최대한 살리면서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방법들이 많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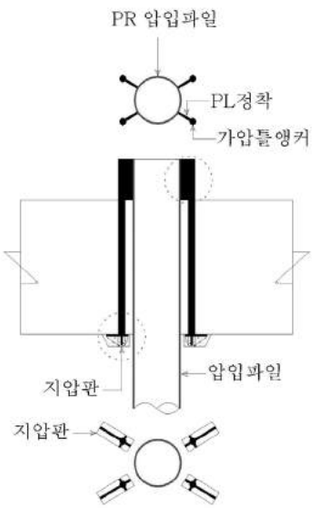
우리 사무실에서는 얼마 전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이런 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보강방법에 대하여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을 획득하였다. 많은 부분을 엔지니어링사가 주도하였지만 당사의 수많은 현장관리 경험과 기술력이 더하여져서 이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공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PR공법(Pile by Reaction:반력을 이용한 압입말뚝 기초보강공법 - 우측 개요도 참조)이라고 하는데, 기존 기초를 보강 혹은 증설하고 지내력을 확보한 압입강관 말뚝으로 지상, 지하 증축 및 부동침하 복원, 건축구조물 들어올리기 등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시공한다는 점에서 요즘 건축화두인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에 의한 건물수명연장과 재건축으로 인한 폐기물 및 CO_2 발생을 감소시키는 녹색기술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경험을 동료 건축사들과 나누고, 구조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설계를 적용하기를 망설이는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사들도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추면 신기술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자 한다.

개요도



〈기존기초 단면보강〉



〈압입파일의 정착〉

기술개발의 배경

연약지반 위에 직접기초로 시공된 구조물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침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실제 침하로 인한 사고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증축 등으로 하중이 증가될 때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반을 보강하는 방법과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기초를 선단지지말뚝으로 보강하여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공 완료된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선단지지말뚝으로 보강하는 것은 신축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구조적,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협소한 장소 및 공간에서 진동과 소음 없이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으로 선단지지말뚝을 보강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로 간주되어왔다.

1. 기존 건축물의 기초 천공과정에서 기초 철근 절단
2. 기초하부의 지반굴착, 진동으로 인한 지반교란 발생
3. 낮은 층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비 접근, 작업조건의 제약
4. 지하에 묻혀 있는 기초는 사전 육안조사가 불가능하고, 도면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있다 하더라도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5. 습윤 상태의 기초 콘크리트와 철근은 지상에서 관찰될 때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공법에서는 강관말뚝을 지반천공 하지 않고 유압잭으로 압입하므로 폐기물, 소음, 분진 등의 발생이 거의 없으며, 단면 증설에 의해 기초철근 절단이 최소화되며, 콤팩트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좁고, 낮은 층고에서도 시공 가능하며, 시공하는 모든 파일의 압입 깊이별 압입하중이 자동 측정되므로 기초보강 파일의 재하시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기존 기초에 대한 과학적인 내력검증이 용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기초 하부지반을 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에 더 이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매우 큰 특징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지반 보강공법이나 파일시공법 등은 모두 선 천공 후 파일을 시공하거나 그라우팅 하여 기초를 보강하고 있는데 선 천공함에 따라 구조물에 문제를 더 유발하여 더 악화된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매우 유익한 공법이라 하겠다.

본 공법은 2000년대 초 소규모 토목 교량의 교각 붕괴사고를 해결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하여, 10여 년간 국내 건축, 토목현장과 중국에서 기울어진 구조물의 복원인상과 기초보강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지하증축 또는 수직 증축하는 리모델링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고, 신기술(NET)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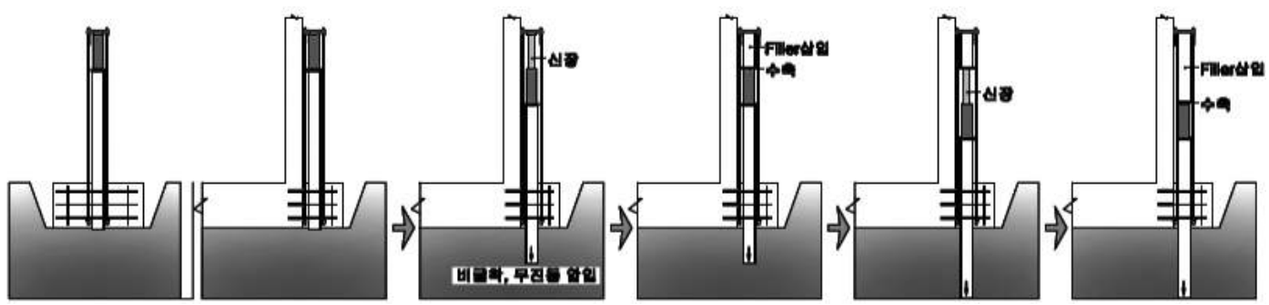
표준시공 절차

→ 기초단면 증설 및 Shear Key(철근) 설치
→ 가압틀 설치 및 파일 매입
→ 계측 개별압입
→ 동시가압/기초보강, 승상
→ 압입파일 정착 및 마감

시공은 보강설계를 통하여 산정한 파일을 가압틀을 설치하여 한 본씩 압입하며, 이때 개별 압입력이 유압게이지에 표시된다. 신기술의 표준시공 절차는 아래에 표시하였다.

〈표준시공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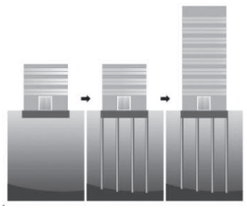
1.현황조사 – 기초형태, 지반조사, 구조물의 상태, 작업조건
↓
2.보강설계 – 하중산출, 파일설계, 파일배치, 가압 틀 설계
↓
3.개별압입 – 신설 또는 단면증설 가압 틀 설치, 계측압입
↓
4.동시가압 – 잭 Group화, 동시가압, 허용변위제어 침하복원, 승상
↓
5.마감 – 정착,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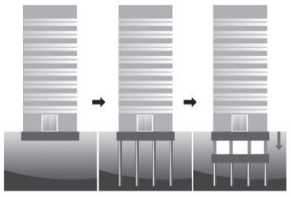
① 시설 or 단면증설 가압틀 설치 파일압일준비 ② 가압 ⇒ 신장, 압입 ③ 제거 ⇒ 수축 ⇒ 삽입 ② 가압 ⇒ 신장, 압입 ③ 제거 ⇒ 수축 ⇒ 삽입

〈파일 압입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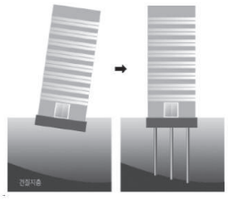
적용방법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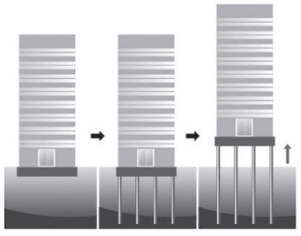
기초보강 및 지상증축



지하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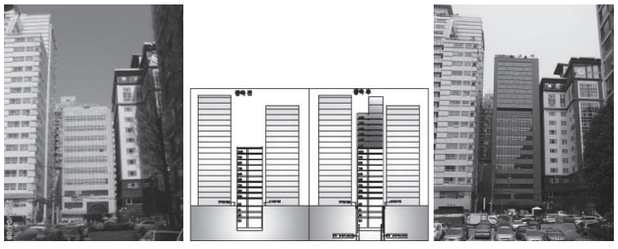
부등침하 복원



승상(Lifting Up)

1. 기초보강 및 지상증축

- 기초의 파손 및 침하로 인해 기울어진 건축물 복원인상
- 인접대지경계 1m 미만 협소한 공간조건에서도 보강가능
-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기초보강
- 입주자 거주상태에서 비굴착 · 무진동 말뚝보강



리모델링 기초보강 : 지상 10층→15층 수직증축

PHC 파일이 파괴되어 위험한 상태

압입 파일로 보강되어 안정된 상태

호박돌기초 조적조 문화재 1.3m 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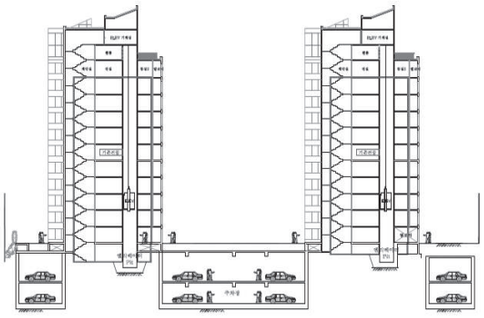
낮은 층고에서 기초 보강파일 시공

2. 주차장 및 코어하부 지하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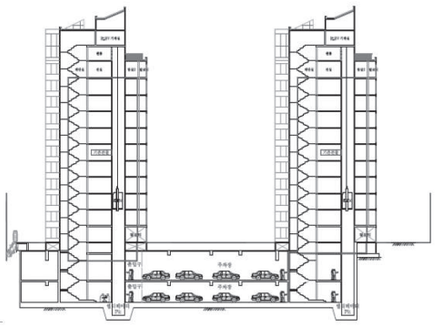
- 아파트 코어하부 지하증축 가능
-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실 지하 연결이 용이
- 리모델링시 주차장의 굴착범위 감소

백화점 기초하부 증축

건축물 기초하부 뜬구조 형성



코어하부 연결이 어려운 일반 공법



코어하부 연결이 가능한 공법

굴착량 증가되어 공사비 증가

계단실과 주차장 연결 용이하고
굴착량 감소로 경제적

3. 부동침하 복원 및 건축물 들어올리기

- 기울어진 건축물 복원인상
- 부동침하 발생된 건축물 복원인상
- 부동침하 발생된 토목 구조물 복원

백화점 기초하부 증축

건축물 기초하부 뜬구조 형성

복원전 : 기울기1/40의 부동침하된 건축물

복원후 : 정상적으로 복원된 건축물

박스 기초침하 복원

부동침하 된 빌딩 복원

이 공법의 장래성 및 시장성

상기 분야 이외에도 앞서 얘기한 토목교량의 기초보강과 들어올리기(승상: Lifting up) 부분과 기존 지지력이 부족한 기초의 보강분야에서 개척하기에 따라 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실적을 쌓고 있으며 열악한 교량 시설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즉 해외 건설 시장 개척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과높이가 낮아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육교도 조금만 승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제방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댐이 계획되면 문화재, 교량 등을 승상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주 하천이 정비되면 지하천, 취수탑도 정비될 것이다. 승상 대상 구조물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설계사례는 제법있다. 앞으로 철거될 수많은 구조물이 기초보강, 침하복원, 승상 등에 의하여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수명은 '물리적 퇴화'와 '기능상 질적 저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파트의 법적수명인 세법상 내용연수는 60년이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아파트의 물리적 수명은 100년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물리적, 법적 수명보다 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수명의 퇴화로 실제 수명이 평균 20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아파트 수명보다 턱없이 짧은 셈이다. 2008년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자료에 의하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2009년엔 300만호이지만 2015년이 되면 500만호를 초과하게 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가 초스피드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차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엘리베이터도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추세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이 공법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은 그 기울어짐 자체로 인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었지만, 실제 생활을 담는 건축물은 사용성 문제 때문에 어쨌든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신기술 인증을 받는 중에도 평가위원으로부터 이 공법으로 피사의 사탑도 바로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가능성을 얘기했다지만, 디자인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로서 튼튼한 기초에 기반을 둔 건축물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인 것이다.

이제 일반인들도 건축물을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보다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 경향이 요즘 들어 늘어나는 추세인 건 확실하며,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알뜰히 이용해야 하는 점에서도, 함부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개량, 개선하여 사용연한을 늘리려는 점에서도 이 기초보강공법은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동료 건축사들의 리모델링 설계문제 해결에 이 공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와 유사한 지속가능한 신공법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조현군 건축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에 재직 중이다. 구청 건축위원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심사위원 및 법원, 검찰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 진행과 관련하여

About Process of New U.S. Military Base Project (YRP)

오근석 | 전 LH대가기준 TF팀 위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한민국의 국토가 아비규환이 되어갈 때 북한의 남침 도발을 응징하고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이 왔고 그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되어 왔다. 전쟁 당시 수십만명의 다국적 군인들이 우리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이 나라를 지켜주었다.

휴전이 되고나서 한 · 미 방위조약에 의거 일부 미군이 남아 우리국방을 같이 지켜오고 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용산기지 및 국내 몇몇 미군부대 내 주한미군시설이 유지되어 오다가 한 · 미 양국의 협상에 의거 미군시설물을 평택 Camp Humphreys와 그 일대를 확장하여 이전하는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이 약 4년여 늦어져왔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워낙 큰 사업비(약 9조원 이상 예상)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인하여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설계를 업으로 하는 우리 또한 큰 관심사였다.

2007년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PMC)를 선정해 KC-PMC가 설립되어 사업전반에 관하여 기술적 관리를 맡아왔으나 양국가간의 의견 조율과 이전비용문제, 용지사용문제 등 각각의 견해 차이를 보이며 업무가 미루어져 지연, 이견노출 등으로 수많은 고비를 맞기도 하였다. 기지이전과 관련 이견이 봉합될 쯤 해서 발주된 첫 사업은 설계 · 시공의 분리 발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설계 진행상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현재는 그 발주방법을 시공사를 주관으로 하는 '기술제안입찰'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은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용산 미군시설 이전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많은 미군 시설들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이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이미 2005년 토지매입이 이루어졌고 매입된 부지는 지표면이 낮아 시설물을 앉히기에는 너무 저지대에 위치하므로 그 이후 수년째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토 작업이 완료된 부지에는 시설물의 설계가 진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YRP)의 발주처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과 LH공사가 맡고 있으며 한 · 미 양국정부의 협의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었고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주한 미군 시설물 설계에 참여하였던 건축사들이 책정

미8군 막사 조감도

병원 조감도

된 설계비 예산이 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 명의로 설계비 현실화 방안을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여기서 Behind Story를 간략히 소개하면 우리 국방부 담당자들은 설계부문의 업무를 가능한 많은 Local Architects를 활용할 계획으로 업무발주를 추진하였으나 미측 입장은 설계의 규정과 품질을 거론하여 SOFA A/E로 모든 설계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임을 앞세워 현재 Local에서 대부분 설계를 수행시킬 계획임.)

여하튼 지금은 발주방법이 기본설계도서(30% Criteria Packages)를 제공받아 시공사 주도하에 이를 기초로 기술제안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 지급이 시공회사의 권한으로 넘겨져 현재 참여 설계사는 시공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당 설계비가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난제를 기술할까 한다.

우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과 LH공사에서는 미군 시설 설계가 특수한 업무 즉 미군 규정과 Guide-line을 준용하고, 영어와 한글을 병행 기입하는 업무와 작성도서에 따른 Review도 많게는 20여 곳이 넘는 관련 기관의 검토, 즉 미군극동공병단(FED) 및 하와이사령부(POD)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업무의 특성상 유경험자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엔지니어 수요가 넉넉지 않아 해외 업체 및 기술자를 참여시키고 License도 미국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며 그 복잡성과 Risk한 부분을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책임지고 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발주처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기에 우선 대형시공사를 위시해서 발주를 내고 있으며 여기에 설계사들도 주로 대형설계사 위주로 발탁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그동안 미군 시설물 설계는 FED가 주관하여 그 산하의 미국 건축사사무소(SOFA A/E라 함) 3개사가 수 십 년째 수행해 오고 있다. 즉 대부분의 기 발주된 설계는 FED In-House 설계실과 상기 3개사가 당연히 수행하였는바 그동안 우리 국내 설계업체는 부분적 하청을 하였거나 극히 일부분만 업무에 참여하여 왔다. 현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 및 LH공사의 발주방법은 국내 조달청 발주방법을 따르고 있어 우리 사회구조로는 이런 특수화 또는 전문화된 설계업무에 경험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하기가 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P.Q 점수를 입찰안내서에 삽입한 순간부터 P.Q점수가점에 대형 업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특화된 중견업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한편 YRP사업은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원활한 진행 및 완료를 위해 모든 국내 건설사 및 설계업체들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설계업체의 용역비 부분에서도 대형건설사가 Leading하면서 진행하는 관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저렴한 용역비로 계약되지 않나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는 상기 공사에 국산자재를 많이 적용하려는 계획 하에 적용되는 국산자재마다 FED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자재로 승인받기 위한 발판으로 6회에 걸친 자재국산화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재의 품질화 · 성능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90여개 Items이 인증을 받아 점차 적용될 계획이다.

전체적인 Road-Map에서 보면 현시점이 매우 중요하여,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겸한 기술제안 입찰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발주되어 설계기간을 약 1년 내외 그리고 설계 후 약 1~2년의 기간으로 시설물공사 및 준공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에 많은 양의 공사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에 일단의 부지에 수많은 현장이 개설되고 공사 현장의 과부하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충분한 Engineer의 조달문제, 품질보증과 자재의 원활한 조달문제 등 앞으로도 풀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부진행 사항은 [표1]과 같다.

끝으로 발주처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MURO)와 LH공사는 그동안 양국가간의 의견조율 등으로 여러 난제들을 어렵게 풀어왔지만 국내 설계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고 참여한 시공사에서도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배양과 한국 건축의 미래를 키워나간다는 소명 하에 많은 배려와 모든 참여자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표1) YRP 사업 진행현황

2012년 5월15일 현재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면적 (㎡)	발주처 (발주방식)	개찰일	설계기간	공사기간	비고
초 · 고등학교 (1,426억원)	38,589	LH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	'11.04.26	238일	792일	설계/시공 분리발주
미8군 막사 외 (1,372억원)	56,440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1.12.24	318일	880일	
의무여단본부 외 (650억원)	41,506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4.26	343일	720일	
의무여단막사 외 (865억원)	34,240	국방부 (기본설계기술제안)	'12.05.23	305일	'15.11.20 까지	
병원 및 치과 (1,925억원)	42,579	국방부 (실시설계기술제안)	'12.06.11	–	1,200일	
초 · 중등학교 외 (1,539억원)	42,216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6.11	337일	790일	
8군통합본부 외 (2,634억원)	78,978	LH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12.07.	323일	615일	
미드타운의료시설 외 (451억원)	9,917	국방부 (기본설계기술제안)	'12.09.03	319일	600일	

(주)상기 내용은 입찰공고 시 내용임

오근석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아도무건축을 거쳐 주한 미군 설계실에서 10년간 근무하였다. 1992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축사사무소 담 건축, 유진건축을 운영하였다. 현재 (주)유진인터네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TF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나의 행랑채에 대한 조사(弔辭)

My funeral address about 'Hangranchae(Servant Quarter)'

최상철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우리 집 행랑채

엊그제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날, 내가 살던 고향집 행랑채가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이미 달포 전 고향집에 들렀을 때, 행랑채의 병색이 완연한 걸 보고 왔기 때문이다. 기둥뿌리는 여기저기 썩어 있었고, 지붕 어느 구석에서 비가 샜는지 벽에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심한 얼룩이 져 있었으며, 흙이 탈락된 외벽 사이로는 마치 갈비뼈 같은 외(猥,lath)가 훤히 드러나 보였던 것이다.

어쨌든 서둘러 그 주검을 치워야 했다. 그렇지만 이미 아침나절이 한참 지난 터라 마땅한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갖은 수소문 끝에 마침 쉬고 있던 작은 포클레인 한 대를 불렀다. 포클레인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발 앞에 내팽겨져 있던 기다란 나무토막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뒤집어보니, 아! 그것은 그 볼품없어 보이던 행랑채의 상량(上樑)이었다.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시(某時) 입주상량(立柱上樑)"이라고 정갈하게 쓰인 그 상량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아뿔싸……!" 하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다.

방금 어느 하나의 생명체가 졸(卒)한 것 아닌가? 설사 곡(哭)은 못할지라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다. 서둘러 예(?)를 갖췄다. 상량문의 발원대로 "지금까지 가운이 번창하고 집안 식구들이 그대와 더불어 행복했었노라."고 하는, 나지막한 묵념과 함께 간단한 작별인사를 드린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 그 어느 한 때, 짓궂은 술래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던 보호자 구실을 하기도 했고, 그 어느 땐가는 먹음직스러운 벌꿀단지 때문에 내 발걸음을 자꾸만 끌어들이던 허드레 광이기도 했으며, 또 가을 타작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집안의 든든

한 쌀뒤주이기도 했다가, 때로는 집안 대소사의 작업장으로서 그 때그때마다 우리가족의 알뜰살뜰한 사랑을 받던 일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내 뇌리 속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 맞다. 그랬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한동안 잊혔던 추억을 반추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요란한 굉음을 내지르며 포클레인이 한 대가 안마당에 당도하였다. 천만다행이었다. 비록 부지불식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행랑채는 간단한 작별까지 받으며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언젠가는 닥쳐오고야 말 생멸(生滅)의 순환을 피해나갈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집요했던 것 같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사물, 즉 물(水), 돌(石), 소나무, 구름 거북, 학 등을 십장생이라고 하여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으랴?

제주 빌레못 동굴

그 기원조차 까마득하다. 우리 인간의 최초 주거지로 알려진 동굴에 새겨진 그림이나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우리는 그 시원적인 욕망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긴 그게 어디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으랴? 무지몽매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렁이나 곤충은 물론, 꽃과 나비 등의 동식물이라고 해도 그 본능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 나가던 개나 돼지, 그리고 소들이 처음에는 발버둥 치며 버티다가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던가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 건축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다행히 운 좋게도 나는 우리 집 행랑채를 아름답게 고이 보내드렸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러한 말년의 복조차 타고나지 못한다. 아니 건축물이 폐기처분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학살현장 같다.

그래도 다들 한때는 누군가의 알뜰살뜰한 보금자리였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무주택 서민 가장의 가슴 벅찬 첫 둥지였을 수도 있었으며, 또 때로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재산증식의 아주 요긴한 수단으로서 그동안 삶의 환희와 기쁨을 한꺼번에 선사해주는 알뜰한 살림꾼이기도 했겠지만, 그러한 과거의 빛나는 공적 따위는 거의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어떤 때는 정말 저 머나먼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마치 '동물의 왕국'을 지켜보는 것 같다. 커다란 포클레인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어 한순간에 폐가를 쓰러뜨리고 나면, 그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마치 까마귀나 승냥이 떼처럼 일단의 무리들이 줄지어 모여든다.

어느 놈은 기둥이나 서까래, 도리 중에서 비교적 쓸 만한 것을 먼저 골라서 차에 싣고 달아나고, 어느 놈은 낡은 가스통이나 보일러를 떼어 고물상에 넘기겠다고 달려들고, 또 어느 놈은 그저 짓이겨진 목재라도 건져서 땔감으로 쓰겠다고 그 잔해(殘骸) 사이를 연신 기웃거린다. 그것이 본디 우리 건축의 타고난 운명이라면, 참으로 가혹한 팔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사지를 여섯 토막으로 찢어 죽이는 육시(六弑)가 최고의 극형이었지만, 그것도 철거되는 집에 비하면 시쳇말로 '깜'도 되지 않는다. 잘리고, 털리고, 바숴지다가 급기야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소음이 진동을 하는가 하면, 석면 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하늘을 자욱이 뒤덮는다. 그렇게 한때 우리의 소중한 삶터였던 집은 모두 다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집 행랑채는 참으로 천운을 타고 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어느 이름 없는 시골목수가 앞 뒷산 잔솔가지를 베어다가 둔탁한 망치로 뚝딱뚝딱 지어 올렸고, 신분조차 번듯한 안채나 사랑채가 되지 못하고 그저 허름한 행랑채로 평생을 버텨왔지만, 그래도 다른 여느 집들처럼 포클레인이나 망치로 무참하게 능지처참 당하지 않고, 이른바 천수를 다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기억을 고스란히 뒤로 한 채, 황망히 먼 길을 떠난 우리 집 행랑채와의 이별이 자꾸만 더 애틋해진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우리 집 행랑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이 멋쩍은 조사(弔辭)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대로 인해서 한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노라."

최상철은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주에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작품으로는 「애일당」, 「주남헌」, 「아중제」, 「삼락헌」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이 있다.

협회소식

제5회 이사회

2012년도 제5회 이사회가 지난 5월 9일 오후 1시에 고양국제꽃박람회장 꽃 올림피아드 1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2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대한건설진흥회 특별회원 가입의 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의 건, 사무기구표 개정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 제정의 건,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의 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운영비 지원금 배분의 건, 전국여성건축사대회 후원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되, 분임토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정익현 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 : 대한건설진흥회 특별회원 가입의 건
  - 대한건설진흥회에 특별회원(법인)으로 가입하기로 함. (반대: 1인)
- 제3호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의 건
  - 건축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 사무기구표 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오늘 논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운영비 지원금 배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후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건축사등록원 영문도메인은 'kira-karb'에서 'kirakarb'로 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제1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회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건축 관련 분쟁 · 소송 등에 관하여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적극 조치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신문에 회원들의 건축관련 분쟁 및 소송에 관한 사례모집을 홍보하고, 여러가지 고충해결 방안을 좀더 모색하여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토에 관한 건
  - 다음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국제위원회 위원 업무분담 및 사업계획 -2012년도 업무분장

구 분	자문위원 등	위 원
1. 교류 국가의 우선순위 및 장기 전략	이근창	전성호
2. 교류협정서(MOU) 관리 및 표준화	심재호	이윤석 한동수
3. 교류국가의 건축실무 자료 수집/분석 (계약서, 설계비 산정, 법규체계 등)	김성민	심형섭 임희선
4. 교류국가의 건축사단체 자료 수집/분석 (조직, 규모, 행사 등)	신춘규	이승석
5. 해외 자료/인맥의 국내 활용 (세미나 개최, 자료 공유 등)	김지덕	조인숙 전성호

–관련 기구 및 업무에 따른 역할분담

구 분	자문위원 등	위 원
국제건축사연맹(UIA)	심재호, 김성민	이승석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이근창, 신춘규	조인숙
유럽건축사협의회(ACE)	심재호	이윤석, 주범
교류단체 컨벤션 참가	김지덕, 이근창	임희선
건축설계시장 개방(FTA, MRA)	심재호	국토해양부 관계자 (위촉 예정)
해외건축설계시장 개척	김성민	심형섭

※ AA誌 작품 선정 (담당위원) 미정 (이승석 위원 추천)

– ARCASIA 위원회 업무분장 – '12. 1월 국제위원회 회의 논의결과

구 분	위 원(정)	위 원(부)
교육위원회	조인숙	이윤석, 주 범
친환경위원회	이근창	전성호
건축실무위원회	신춘규	심형섭, 이승석
Fellowship 위원회	김지덕	
UIA 제4지역 협의회	김성민 UIA 대리이사	
사회책임위원회	김성민	임희선
내부협의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 제2호 : 중국건축학회(ASC) MOU 체결 방문
  – ASC에 중국 베이징 방문일정(6.4~6)을 확인 후,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 구성을 확정하기로 협의함.
  – 상호교류협정서 내용은 심재호 자문위원이 검토하기로 협의함.
• 제3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 희망 위원 및 지명 위원 중 회장이 대표단을 확정토록 건의하기로 함.
  – 주제발표 연사는 2011–2012 ARCASIA Awards 수상자이자, 대회 주제에 관한 다수의 업무경험이 있는 조인숙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건의하며 최초로 주제발표 연사추천을 요청받은 이근창 자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하기로 함.
  – 대표단 업무분장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학생 잼버리 참가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수상 학생들 중 인터뷰를 통해 2명을 선발하기로 협의.
• 제4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 차기회의에서 논의한 후 추가 안건을 송부하기로 함.

■1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
  – 금년도 총회승인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회원 설문조사와 연구용역까지 금년내에 완료하여 내년 총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연금 '회원 설문조사'에 관한 건
  – 연금사업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지'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설문지(안)을 차기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소위원회 구성
    – 목 적 : 건축사연금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작성
    – 위원명 : (위원장) 김청권, (위원) 김세환, 최오용 필요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통계학과 출신) 등 활용
    – 운 영 :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위원회 전까지 회원 설문지안 마련 (차기위원회 2012년 6월 25일 예정)

▲기타사항 :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
– 연금사업이 나아갈 방향 및 회원 설문조사 방법, 목적 등에 대하여 위원들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제1회 건축사연금추진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연금 '회원 설문조사서' 작성의 건
– 건축사 연금사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안 마련을 위하여 각 위원(장)이 작성한 초안을 문항별로 검토, 협의하여 1차 '설문조사서안'을 작성함.

■제4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제4회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실무교육 과정에 관한 건
  – 윤리교육 1시간은 집체교육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 강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

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교육과정 개발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소수 교육수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전문건축사가 집체교육 위주로 진행하기로 함.
- 집체교육은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7월 이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먼저 등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YTN에서 방영한 '도시와 건축'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올리고 자기계발시간 1시간 교육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함.
- 교육원이 자립해야 하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최소 등록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하고 집체교육 수강료는 회원은 1만 5천원/시간, 비회원은 3만원/시간으로 조정함. 동영상 강의료는 위원장이 AIA회의에서 해외 교육원 상황을 좀 더 파악한 후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실무교육과정 개발 용역에 관한 건
- 6월 이사회에서 실행예산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하기로 함.

• 제3호 : 한옥 T/F 구성에 관한 건
- 한옥 T/F 구성에 대하여 장순용 위원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협회발전워크숍 분임토의의 건
- 분임토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분임토의 방법
- 3개팀으로 하여 팀당 대주제를 부여하고 필요시 소주제를 부여하여 논의

• 분임토의 주제 선정
- 분임토의 주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참고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주제별 분임장 선정 및 자료작성
- 분임장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담당임원 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하여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 제2호 : 한양서체 관련 대책 수립의 건
- 한양서체 등과 같이 한글폰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대안(무료폰트 홍보 등)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해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만큼 BIM TF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한글폰트와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함.

• 제3호 : 2012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방안의 건
- 정책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0월경에 정책대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기타사항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함.

■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건
- 2012년도 회관 유지관리 주요계획 중 대강당 환경개선에서 영상설비 개선, 벽체 흡음제 보완, 조명 개선, 그리고 승강기홀 천정도장, 옥외간판 신규제작 건은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이 되었음으로 적정 시행하기로 함.

■ 제3회 사업위원회

제3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2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의 건
- 전시사업 예산(안)의 홍보광고비 지출항목 조정(안)은 변경없이 기존 원안대로 함.
- 협회발행지와 건축 · 건설관련 전문지 광고비는 필요한 만큼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여 사용하고 차년도 예산계획시에 반영토록 함.

• 전시회 규모는 총280부스(유료부스 200, 무료부스 80)를 목표로 하며, 무료 부스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전과 건축사미술전 등 협회행사용으로 구성함.

• 차기 회의부터는 위원별 참가업체 유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에 자재업체를 초대하여 전시품목에 관한 브리핑을 들어보기로 함.

▲기타사항

• 시 · 도건축사회 교통비 지원은 차기 시 · 도회장 회의시 사업위원장이 참석하여 예산규모 내에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함.

• KAFF CATALOG 발간 이후에 회원들의 추천제품 사용에 대한 질의응대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키로 함.

■ **제2회 친환경TF**

제2회 친환경TF 회의가 지난 5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친환경TF팀 운영 및 추진방향에 관한 건
  - 2011년도 친환경TF팀 회의결과와 활동내용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방향에 관한 건
  - 국내 · 외 타법령을 조사(코트라를 통해 요청) · 분석한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건의하기로 함
- 제3호 : 친환경 인증기관 추진에 관한 건
  - 친환경 인증기관 신청은 상근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0조 제6항에서 운영기관을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호 : 기타의 건
  - 민간자격증 도입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 **제1회 건축위원회**

제1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위원회 운영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건축위원회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률 또는 제도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발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여 회원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정함.
    ① 용역업무 발주방식 제도 개선 및 설계경기 등 우수사례 조사.
    ② 건축서비스산업 육성발전방향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법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내용인바 이 안건과 관련하여 '법제위원회'와 사전 조율 후 업무의 진행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 제2호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사항 검토의 건
  - 2012년도 5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위임되어 협의한 결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의 필요성과 건축사의 공공기관 업무참여 및 봉사 등 그에 따른 운영기관으로는 건축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협의함.
  - 따라서 협회에서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제안서 요청 등을 확인하여 제안서 제출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김의중 위원을 선출.
  - 건축위원회 회의는 매달 세 번째 주 수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 함.

■ **제8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8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온라인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들을 반영하고 5월 31일 건축사등록원 오픈 전까지 위원들이 외부에서 수시로 홈페이지를 검토하여 수정사항 발생시 사무처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함.

■ **건축영화제 TF**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함.
  △ 본 영화제를 담당할 계약직 전담인력(유영식 위원추천)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며, 계약만료 후에도 행사시행의 연속성 및 노하우 축적 등 행사발전을 위해 계약연장으로 본 영화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임영빈(26세) : 서원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예정
    서원대학 단편영화제 운영 및 제작경험
  - 계약기간 : 2012년 6월 1일~2012년도 11월 말(6개월)
  △ 현재 영화제 준비시점이 너무 늦었고, 협찬도 진행되지 않아 개최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올해부터는 16개 시도건축사회 영화상영 지원도 있어 부담이 가중됨. 영화제 준비를 위한 상시 전담직원 충원 및 사무국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영화제 사무국(전담인력) 부재, 예산부족, 영화제 수급을 위한 프로그래머 부재 등 영화제를 끌고 가기 위한 동력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따른 대책으로 외부 기획사를 통한 영화제 시행, 타 단체와의 공동시행(한국건축가협회, 실

내인테리어협회 등) 등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임.

■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주거복지위원회 사업계획 검토의 건
  - 다문화가정 연구 사업(다문화 커뮤니티 건)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정 연구 사업의 추진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협의키로 함. 죽은 도시 살리기 전국 투어 사업 건에 대해서 30명 내외의 건축사를 초청하여 재생이 필요한 도시와 재생에 성공한 사례의 도시의 답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장소 및 예산 편성은 각각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장소와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차기 회의에서 정하기로 함.

■ 제3회 인사위원회

제3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직원 전보 및 충원의 건
  - 원안과 같이 직원을 전보 및 충원토록 함.

■ 제2회 기획위원회

제2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회장 및 임원선거가 내년 정기총회에 있으므로 공정선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역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 건의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주요의견을 나누고,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제2호 : 사무기구표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의 건
  - 건축사교육원과 건축사등록원을 협회와 별도 운영한다는 원칙에서 직제및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문서규정 등 개정(안)을 확정함.
- 제3호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법인건축사사무소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법인협의회 운영규정은 회원 전체의 공통사항으로는 부적합하므로 논의를 보류함.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개최

대한민국 건축사의 최대 축제이자 한국 건축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감할 수 있는 건축축제인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5개월여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기원을 위한 발대식이 지난 5월 11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발대식에는 추진위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회원들과 중앙관계자, 초청인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얼쑤'가 물을 주제로 한 퓨전 타악 '질주'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방송인 최한아름 씨의 사회로 심상봉 집행위원장(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의 대회사와 이창섭 조직위원장의 인사말, 강성익 대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의 격려사, 이병록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축사 등 각계의 축하가 이어졌다.

격려사에서 강성익 대회장은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로 번지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문화의 큰 축이자 핵심요소인 한국 건축도 이제는 국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가 이를 선포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필서 집행위원의 대표선창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각 대회추진위회의 각 분과 위원장들과 집행위원들이 함께하는 발대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오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16개 시도건축사회원 8,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時 + 文 = 建築」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성익 회장 '2012 AIA 컨벤션' 참가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대표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일간 미국건축사협회(이하 AIA)의 공식 초청으로 AIA 컨벤션(2012 AIA Convention)에 참가, 양 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친목을 공고히 했다.

이번 컨벤션은 미국 워싱턴DC,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됐으며, 조인숙 국제위원장, 김항년 건축사등록업무위원, 김윤 건축사교육원설립준비위원장이 동행했다.

대표단은 AIA CPD Workshop 참관, VIP 환영파티, 미국연방건축사등록원(NCARB) 방문,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 해외단체장포럼 오찬(International Presidents' Luncheon), 국제위원회 리셉션(International Committee Reception), 해외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s' Forum), 수여식 만찬(2012 College of Fellows Convocational Dinner) 등 공식행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2012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30분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2012 협회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원진과 위원회 위원장,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 각 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워크숍에서 여러분 모두의 식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건축사와 협회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예로 들어 "올해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모든 건축사들이 함께 해 대한민국의 건축사에게 행복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건축사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국가 건축정책 주요현안'을 주제로, 류춘수 회원은 '류춘수 건축의 지역성과 세계성'을 주제로 각 1시간 동안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발전 워크숍은 우리협회가 매년 협회 및 건축사의 역할과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재정립해 건축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으로써 크게 두 가지 주제 '설계시장 정상화 방안'과 '건축사업무의 정착방안'으로 나눠 심도 깊게 논의했다.

첫 번째 분임토의는 이종정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주관해 설계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 대국민 홍보'와 '설계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마련', '공공대가에서의 감리비 낮음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요율 조정', '건축사의 자정 노력' 등 의견들과 그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분임토의인 건축사업무의 정착 방안에 대해서는 오동욱 법제위원장이 좌장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바 '점검 대상을 시도에서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점검표(안)의 공유'와 '점검자 지정은 자치단체에서 시.도건축사회로 위임받아 선정토록 추진', '점검자 객관성을 위한 매뉴얼 확보',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의견들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됐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 및 설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하는 것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리모델링을 일반건축물로 확대', '각종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 '대수선 범위 강화' 등 의견들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적극적이고 심도 깊게 논의됐다.

아울러 워크숍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강성익 회장은 "열띤 분위기에서 많은 제안과 논의들이 있어 감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희망적인 것은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건축과를 건축국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건축의 가치도 높이고 건축사의 위상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건축사등록원 현판식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9층에서 '건축사등록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본협회 임직원이 참

석했고, 국토해양부 유병권 도시정책관과 정태화 건축기획과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장이 참석했다.

강성익 회장은 인사말에서 "등록원 출범은 건축사자격제도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며 "보다 체계적으로 건축사 자격이 관리가 될 것이고, 건축사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사등록원은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12.5.31)에 따라 건축사의 양성과정부터 건축사의 자격취득 이후 활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등록원으로서 기존 건축사자격제도보다 세분화 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요업무는 '교육이수', '실무수련', '자격시험', '자격취득', '자격등록', '실무교육', '갱신등록'으로 업무가 세분화 되었는데, 이는 국내여건을 감안하면서 UIA 국제권고안 기준에 맞춘 것이다.

등록원의 등록 대상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작하려는 모든 건축사이다.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기타 분야에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등록원을 통해 건축사자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등록된 건축사는 앞으로 실무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건축사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윤리교육, 전문교육 및 자기계발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활동참여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5년 내 6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해야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자격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63페이지 〈건축사자격제도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건축사봉사단 발대식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5월 24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서울건축사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울건축사봉사단은 서울시건축사회가 2012년도 사회계획의 일환으로 봉사단을 상시적으로 구성해 건축사의 사회봉사와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에 봉사단을 모집했고, 이날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서울건축사봉사단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활동은 물론, 수해 등 천재지변 발생 시 건축사로서 재능기부에도 적극참여하기 위함이다.

건축계소식

제4회 심원건축학술상 당선작 발표 및 제5회 공모

심원문화사업회(이사장 이태규)가 주최하는 '심원건축학술상(Simwon Architectural Awards forAcademic Researcher)'이 제4회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의 '도리구조와 서까래 구조-동아시아 문명과 목조건축의 구조원리'이며, 심사위원회는 "우리 학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적 체계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목구조론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심원건축학술상은 1년 이내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완성된 연구 성과물로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고(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은 미 발표작으로 간주함)를 응모 받아 그 중 매년 1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하여는 단행본 출간과 저술지원비를 후원한다.

심원문화사업회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한 건축인을 통해 건축의 세계를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기업가가 그와의 인연을 추억하며 건축의 인문적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만든 후원회이다.

아울러 제5회 심원학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했다.

- 당선작 : 1편(상패 및 상금 1천만원과 단행본 출간)
- 응모자격 : 내외국인 제한 없음
- 응모분야 : 건축역사, 건축이론, 건축미학, 건축비평 등 건축인문학 분야에 한함
  (단, 외국국적 보유자인 경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함)
- 접수기간 : 2012년 10월 15일~11월 15일(1개월 간)
- 추천작 발표 :2012년 1월 15일(〈와이드AR〉 2012년 1/2월호 지면)
- 추천인단 운용 및 추천작의 자격기한 : 위원회는 추천인단이 추천한 응모작과 일반 공모를 통해 응모된 연구물에 대하여 소정의 내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그 가운데 매년 1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시상함. 최종 당선작 심사에서 탈락한 추천작은 추천일로부터 2년간 추천작의 자격이 유지되어 총 2회에 걸쳐 최종심사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심사평을 반영한 수정된 원고(수정의 범위와 규모는 응모자 임의 판단에 맡김)를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상기 응모작 제출서류(완성된 연구물 사본 4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재제출해야 함.
- 당선작 발표 : 2013년 1월 15일(〈와이드AR〉 2013년 1/2월호 지면)
- 문의 : 심원문화사업회, 070 - 7715 - 1960

한옥사진공모전 대상에 '아침녘 한옥마을' 선정

국토해양부는 올해 처음 공모한 '제1회 한옥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 '아침녘 한옥마을' 등 총 5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한옥문화원이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해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옥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을 주제로 총 5,389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제출 작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수상작 50점을 선정했다.

선정결과 대상(국토부장관상)에는 허정욱 씨의 '아침녘 한옥마을', 금상(한옥문화원장상)은 정인학 씨의 '초가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은상에 '광양 매화마을', '초가', 동상 '계명대학교 한학촌의 멋', '제주초가', '독락당의 가을맞이' 등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주명덕 위원장(사진작가)은 심사평으로 "'아침녘 한옥마을'은 지붕의 흰 눈과 검은 기와 골이 아침햇살에 독특한 대비를 이루고, 마을의 정련한 배치가 잘 나타나는 등 한옥들이 구성하는 마을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작품집 발간, 전시회 개최, 수상작 판매 등을 통해 우수작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4차 방호구조물 설계 및 해석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제 4차 방호구조물 설계 및 해석 국제학술대회'(DAPS 2012)를 개최한다. 장소는 제주 하얏트리젠시로 6월 19일부터 22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군사 및 민간 시설물의 방호 설계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에서 관련분야의 기술동향 파악, 국제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의 기반기술과 연구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등록은 www.daps2012.org에서 가능하며, 19일 당일 현장등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 문의: DAPS2012 사무국, 053-742-9968

제19회 충북건축디자인캠프 개최

충북대학교 건축학과는 충북대학교 종합교육지원센터(법전원 N-2) 다목적 홀에서 오는 6월 27일~29일까지 '제19회 충북건축디자인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충북건축디자인 캠프는 '도시야 놀자, fun, fun, fun, in city..'라는 주제로 건축을 넘어 도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청권 8개 대학의 학생 45명과 대학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9명의 튜터가 9개 팀으로 혼성 편성되어 2박 3일간 열린다.

6월 27일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시 서현(한양대) 교수의 "도시와 시간공동체"의 특강이 개최되며 6월 29일 오후3시 팀 작업 결과 발표 및 자유토론 후 7시 폐회식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예총, 및 청주예총의 후원과, 충청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충북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충북지회가 주최한다.

• 문의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043-261-3247

그린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 및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

산업교육연구소는 '그린건축물(패시브/액티브하우스) 에너지 효율화 신기술 및 구축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세미나는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의 신기술 및 구축방안과 태양광발전기 ·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액티브하우스의 설치 사례 및 경제성 분석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문의 : 산업교육연구소, www.kiei.com, 02-2025-133

'우리지역이 달라졌어요' 공모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지역이 달라졌어요'란 주제아래 지역의 발전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예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내용의 공모를 시행한다.

응시자격은 학생, 연구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개인응모만 가능하다. 결과발표 일자는 추후 지역발전포털(REDIS)에 공지할 예정이다.

• 문의: 지역발전위원회, 02-6009-8184

정부 및 공공기관서 공인받은 진공 단열재 '에너백'

에너백(ENERVAC)이 지난 2월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로 추천돼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에너백은 이미 2010년 국내 단열재 중 최초로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고, 2011년에는 올해의 녹색기술 제품 선정 받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제주사옥(외단열)과 도학동 건설기술연구원(바닥단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에너지드림센터(외단열)등에 시공된 진공 단열재 에너백은 8배 강화된 단열효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단열재 두께를 기존 제품 대비 1/8 수준으로 줄여 15%의 공간 확장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내부면적 100㎡ 기준)

에너백이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은 에너백의 소재가 되는 고순도 흄드실리카 때문이다. 진공단열재는 내부에 심재인 단열재와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외피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적이고 단열성능이 매우 우수한 고순도 흄드실리카를 심재로 사용한다.

제품의 형태는 다양한 파우더 소재를 판상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일반 나무판과 같이 직각도가 확보되고 표면 평탄도 역시 뛰어나며 사용기간이 30년으로 길어 건축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OCI는 건축용 단열재 적용을 위하여 차별화된 시공성 개선 및 석재, EIFS, 패널 등 다양한 외벽 마감 형태별 시공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문의 : OCI, 02-727-9647

신간안내

알기 쉬운 건축법

김도환 편저 | 1152쪽 | 대건사

신간 '알기 쉬운 건축법'은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매우 복잡하여 건축사와 건축주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편찬됐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가능한 도서 및 서류로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21개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도서 및 서류의 목록이 법령별로 빠짐없이 수록돼 있으며, 또한 쉽게 접할 수 없는 각종 서식과 2012년 2월 23일 자로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건축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개정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수록돼 도움이 된다.

• 문의: 대건사, 02-715-6683

녹색건물 무엇인가 – What is green building

김용식 저 | 316쪽 | 기문당

이 책은 저자가 10년 가까이 지도한 친환경건축 관련 졸업설계 작품을 바탕으로 친환경건축과 녹색건물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재 관련분야의 법 ·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제 성능부분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을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을 제시하며 건축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사용된 국내외 유명 건축물의 설계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녹색건물화와 관련하여 환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문의: 기문당, 02-2295-6171

인문학으로 읽는 건축이야기

후지모리 데루노부 저 | 한은미 역 | 180쪽 | 이순

이 책의 저자 후리모리 데루노부는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사이자 교수로 '건축은 이공계통이지만 인문학과 예술 분야를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인물이다. 또한 역사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데 이 책에서는 원시시대의 인류와 건축의 행보에 관해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며, 원시시대부터의 인류 역사와 건축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인류 건축이 하나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팽창되었다가 약 1만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인류 건축에 더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나 진보는 생겨나지 않고 추상성을 극도로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석기시대의 생활상의 묘사와 역사 속 건축에 대한 저자의 해석 및 유물과 관련된 사진들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느낌을 준다.

• 문의: 이순, 02-3670-1570

재개발 · 재건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2012년 최신판

안재길 편저 | 280쪽 | 법률정보센터

이 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실무자료이다. 책의 구성은 정비사업의 개요 및 연혁 소개를 시작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매도청구, 철거와 착공에 관한 법령 및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개정된 법령 등으로 되어 있다. 책의 주요내용인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 개발비용 등의 산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 평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안 입법예고상의 시공자 선정기준 비교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과 구법을 비교하는 형식을 통하여 건축사들의 현행법 실무 적용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더불어 용도지역 관련 법령과 정비사업제도 운용관련 훈령 고시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법률정보센터, 02-953-211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_Kim, Eunmee I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Working in the Shadows

프리츠커는 왕 슈의 아내이자 파트너인 류 웬유를 무시한 걸까?

Ningbo History Museum (2008) Lv Hengzhong / Atelier

Ningbo History Museum (2008)

올해, 중국인 건축사 Wang Shu는 건축 최고 영예인 프리츠커 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Wang Shu의 아내이자 디자인 파트너인 Lu Wenyu의 업적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연히 맞물린 3월 여성 역사의 달과 프리츠커 수상뿐만 아니라 게다가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가 최근 발표한 '건축분야의 여성들'의 통계는 관점에 있어서 재단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들을 일으켰다. 20년 전, 심사위원들은 Denise Scott Brown을 그녀의 남편이자 파트너 Robert Venturi 편을 들면서 무시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작성한 1975년 기사인 "Room at the Top? Sexism and the Star System in Architecture."에 기록된 수많은 모욕 사례 중 하나이다. – 건축 설계실무에 있는 여성 건축사는 5명 중 1명일 뿐이다. – 이번 해 프리츠커상은 업계에서 더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심사위원은 심사할 때 대단히 철저하고 조심스럽다."라고 프리츠커상의 사무총장인 Martha Thorn은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완성된 작품을 보았다. 그들은 가르침과 작품, 그리고 다른 수상작들을 살펴보았다. 선정 목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면들을 검토하였고 심사위원단은 Wang Shu가 이번해의 수상자여야만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Wang Shu의 작품은 본질적으로 Lu Wenyu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7년, 이들 부부는 Amateur Architecture Studio사를 공동 설립하였다. Wang Shu와 Lu Wenyu는 수상에 공표된 14개 프로젝트들 중 13개를 함께 설계하였다. 2010년, 이 부부는 그들의 공동 작품으로 독일의 권위있는 'Schelling Prize'를 함께 수상하였다. Wang Shu 본인 스스로 협업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와 신념에 대해 얘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협업을 인정하였다. 프리츠커상은 건축은 개인의 작품보다 협업의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 협업 팀들이 수상되어졌었다. ; 2001년 Herzog & de Mouron 그리고 2010년 Sejima와 Nishizawa가 그랬다.

The Los Angeles Times의 인터뷰에서 Lu Wenyu도 같이 수상되어야만 한다고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Wang Shu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또한 NPR(전미 공공 라디오방송)에서 "내가 없다면 디자인이 없고, 그녀가 없이는 그것이 실체화 될 수 없다." 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아내의 인정에 대한 Wang Shu 본인의 입장은 불확실하게 유지됐다. : 프리츠커상의 사무총장인 Ms. Thorne이 그의 의견을 알게 된 것은 The Los Angeles Times 의 블로그가 처음이었다.

현재까지, 프리츠커상은 37명이 수상되어졌고, 그들 중 여성은 겨우 두 명이다. 물론, 재단에서 이런 역사에 대해 인식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건축에 있어서 여성들이 올바른 위치를 받지 못해왔다는 개인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고 Thorne는 말했다. "거기에는 거대한 편견들이 있으며 교육계, 직종 종사자들, 그리고 건축업 내부적으로 여성들은 종종 소외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 위 의 글의 일부는 Architecture Newspaper의 글의 일부를 발췌 인용 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4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669	5,669	93	186	9	27	5,741	5,882	1,650	1,650	231	462	55	165	30	120	18	122	1,984	2,519	7,755	8,401
서울	879	879	23	46	2	6	904	931	833	833	127	254	38	114	13	52	12	73	1,023	1,325	1,927	2,256
부산	484	484	11	22	2	6	497	512	111	111	22	44	2	6	2	8	2	15	139	184	636	696
대구	482	482	20	40	4	12	506	534	66	66	18	36	2	6	4	16	0	0	90	124	596	658
인천	281	281	4	8	0	0	285	289	67	67	6	12	1	3	0	0	0	0	74	82	359	371
광주	199	199	0	0	0	0	199	199	41	41	8	16	1	3	3	12	0	0	53	72	252	271
대전	268	268	6	12	0	0	274	280	31	31	7	14	5	15	0	0	1	14	44	74	318	354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1	220
경기	799	799	1	2	0	0	800	801	242	242	20	40	2	6	2	8	1	5	267	301	1,067	1,102
강원	184	184	2	4	0	0	186	188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15	222
충북	222	222	3	6	0	0	225	228	36	37	2	4	1	3	2	8	1	9	43	61	268	289
충남	261	261	1	2	0	0	262	263	49	49	4	8	1	3	2	8	0	0	56	68	318	331
전북	257	257	5	10	0	0	262	267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1	303
전남	210	210	1	2	0	0	211	212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1	242
경북	391	391	4	8	1	3	396	402	38	38	3	6	1	3	0	0	0	0	42	47	438	449
경남	434	434	7	14	0	0	441	448	32	302	3	6	0	0	0	0	0	0	35	38	476	486
제주	134	134	0	0	0	0	134	134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0	151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8,401	100%	13
서울	2,256	33.9%	2
부산	696	7.9%	8
대구	653	7.7%	0
인천	371	3.8%	0
광주	271	3.7%	0
대전	354	3.7%	0
울산	220	2.6%	0
경기	1,102	12.2%	3
강원	222	2.6%	0
충북	289	3.0%	0
충남	331	3.1%	0
전북	303	3.0%	0
전남	242	1.9%	0
경북	449	4.6%	0
경남	486	5.0%	0
제주	151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882	2,519	8,401	
비율	70.02%	29.98%	100%	
사무소수	5,771	1,984	7,755	
비율	74.40%	25.60%	100%	